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목 차



- 4 여는 글
- 10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걸어온 길
- 14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4



- 18 2014 이렇게 일했습니다
- 20 누구나학교 그리고 누구나학습마을
- 24 지역협력사업
- 28 싱크탱크
- 32 인문학 프로그램
- 38 전문가 및 지역리더 양성
- 44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 46 삶의 기술 프로그램
- 48 생활문화 프로그램
- 52 학습모임 & 동아리
- 54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



- 60 통계로 보는 2014
- 64 2014 프로그램 목록



- 76 2014 프로그램 다시보기
- 77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스케치
- 81 누구나학습마을 기획기사 요약
- 83 와글와글포럼 후기
- 85 교육세미나 후기
- 89 예술인문학 후기
- 91 나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 후기
- 93 읽고 토론하기 후기
- 94 말랑말랑 시사토크 후기
- 96 제2의 인생학교 후기
- 99 더느린삶 Bee Happy 후기
- 101 우리 함께 발표회 후기
- 103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 스케치
- 107 수원외고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 후기
- 110 시민기자교육 후기
- 112 인큐베이팅센터 99°C 입주단체 인터뷰

- 116 함께하는 사람들

비합리적인 사람이 역사를 새로 씁니다

이력서와 애뉴얼리포트

2월이면 모든 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립니다. 그러나 졸업 전에 이미 출근하기 시작한 학생이 있는 반면 여전히 이력서를 만지작거리는 더 많은 수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직이 힘든 시절에는 이력서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기본이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토익점수에,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과 유명짜한 곳에서의 인턴 경험 정도 깔아줘야 그나마 경쟁력 있는 이력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력서(履歷書)의 ‘이(履)’자에 대한 뜻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밝다/ (신을) 신다/행하다》

그러니 이력서의 진정한 뜻은 ‘신을 신고 땅을 밟아 구체적으로 행한 자신의 삶의 궤적을 정리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요량으로 토익 점수를 따거나 빈칸 메우기용 해외연수는 이력서의 본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두발로

땀 흘려 일구지 않은 이력으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가치와 정신이 그 뜻에 깔려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직한 삶의 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력서가 개인의 땀내 나는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1년에 한번 발간하는 애뉴얼리포트는 한 기관의 단순한 성과(成果)가 아니라 성(成)과 과(過)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력서에 제대로 된 이(履)가 없듯 저희의 애뉴얼리포트는 그야말로 잘된 점을 중심으로 부각하는 운영성과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책자를 읽으실 때 이점을 감안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미래』와 사업계획서

라인하르트 코젤렉은 독일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분의 저서 중에 『지나간 미래 Vergangenheit Zukunft』(1979)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이 간단치 않아서 저는 아직 읽어 보지 않았습디만 제목이 일단 범상치 않습니다. ‘지나간 미래’라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지독한 형용모순의 언어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그런데 지나갔다니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오직 현재의 학문과 경험과 논리에 근거한 문법으로 재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늘 과거의 것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늘상 지나간 미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면 ‘지나간 미래’와 같은 문법이 작동됩니다. 즉, 기존에 해왔던 익숙한 사업이나 타기관에서 평가가 좋았던 사업들 중심으로 미래

의 사업계획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맥빠진 미래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혁신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일 죽어도 내가 이 일을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고 하는데 그런 목숨을 건 결정은 아니지만, 품도 많이 들고 성과가 나기도 쉽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한번 새로운 길에 나서는 결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습관에서는 그런 담대한 도전을 하는 것에 주저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혁신하는 방안을 찾지 못해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집이라 쓰고 회한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유의미한 사업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인큐베이팅 사업

평생학습계에도 융복합의 ‘요구’와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요구’의 주체는 중앙정부 단위인데 학습이 학습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일, 학습과 복지의 연계와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학습-일-복지의 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제대로 된 조건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일종의 밀어붙이기 식 사업으로 진



행될 경우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요구의 주체가 중앙정부라면 '기대'의 당사자는 당연히 시민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의 학습을 통해 자아개발과 구직 혹은 수입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준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약 20평형)을 인큐베이팅 시설로 세팅하여 비전과 의지를 갖춘 팀들을 입주시킨 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은 1월 초 현재까지는 총5개의 팀(2개팀은 협동조합, 2개팀은 협동조합 준비 중, 1개팀은 재단법인)이 입주하였는데 어느정도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면 서서히 독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자력갱생하는 팀도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습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해당 팀과 연결시켜 사업화하도록 촉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단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사업의 구체성을 높였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보완/지원할 것에 대해 숙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5년에는 훨씬 더 높이 나는 팀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이 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은 평생학습관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교육

시민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다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구체화시켜 보자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인 덴마크 로니 에버겔 초청 강연회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휴먼라이브러리를 평가/정리해보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직접 진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학습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의 시민사회, 평생학습계 등 기관, 단체 31개가 합심하여 일을 진행하는 남다른 의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목표와 기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부터 조율을 해야 했고 여러 난관과 어려움을 겪긴 하였지만 한 도시 차원에서 전체 기관, 단체의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매우 긍정적 자산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원의 시민단체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일상화 할 것인지, 시민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지향과 규모에 맞게 휴먼라이브러리를 차별화시켜 일상적으



로 진행된다면 시민교육의 새로운 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니어사업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고령화는 저출산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다른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저하와도 인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심각한 실존적 곤혹스러움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국가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도 우리 국민은 각자도생의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학습관이 시니어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 자체가 별로 올바른 방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복돋우고 그런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시니어 스스로의 자력갱생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사업

의 핵심은 시니어 연령대의 특성과 지향에 맞는 강의의 배치라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제2의 인생학교> 강좌를 개최했는데 수료생 40여명이 스스로 동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동문회 멤버를 주축으로 시니어의 학습과 활동의 베이스캠프인 <취라도학교> 개설을 위한 TFT를 결성하여 지난 12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니어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니어를 위한 <취라도학교>는 2015년에 왕성한 활동을 통해 시니어학습과 활동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20여년이 경과되었는데 지방자치를 설명할 때면 의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댕구처럼 따라 붙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 단위로 들어가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풀뿌리 보수주의가 더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단위에서의 시민교육,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육에 있어 왕왕 노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나 전문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 이모,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메시지보다는 어찌면 메신저가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평생학습마을을 만들고자 할 때는 그것을 일구고 있는 코디의 비전과



메시지보다는 사람 그 자체로 다가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마을 사업은 초창기의 어려움을 딛고 상당한 진척을 일궈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

진 신뢰는 학습마을만들기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탄4동, 화서1동, 조원1동에서 각각 전개되고 있는 평생학습마을 사업은 마을 단위의 조건과 특징을 기반으로 각각의 독특한 빛깔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post 코디’를 염두에 두고 리더 발굴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현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의 중요한 화두이자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후통첩 게임과 불합리한 인간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기적이면서 합리적인 존재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전제는 1982년 독일 훔볼트대학의 경제학자인 베르너 귀트의 ‘최후통첩 게임’을 통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초면이며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혀 낯

선 사람이 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비뽑기를 통해 제안자와 반응자로 나눈 후 제안자가 돈 10만원을 반응자에게 얼마만큼 나눠주느냐,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 반응자가 OK를 하느냐 아니면 NO를 하느냐입니다. 단, OK를 할 경우 제안된 금액을 서로 갖게 되지만 NO를 할 경우에는 서로 단 한푼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제안자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제안할 것이고 반응자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NO를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결과를 보면 제안자는 최소 40% 이상을 제안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50%를 제안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합니다. 역으로 반응자의 경우에는 20% 이하의 제안일 경우에는 거부해 버렸다고 합니다. 비록 배분자보다는 적을지라도 2만원이라는 공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판을 엎어버리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불합리한 행동인 것입니다. 기존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셈이죠.

한 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 대회가 열리던 날, 신체 장애가 있어 운동회 참가하길 꺼려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 날에도 역시 한참 뒤처져 뛰던 아이는 갑자기 친구들이 뒤돌아서서 자신의 손을 이끌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자 이 아이는 친구들의 우정에 눈물이 났고 가족들도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달리기 게임은 이 아이가 입학했을 때부터 줄곧 해왔고 따라서 이번에도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간의 게임으로 인식하고 1등을 향해 달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인간형입니다. 그러나 최후통첩 게임이나 달리기 경주나 사람들은 단지 목전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만큼 이나마 밀고 온 것은 그러한 불합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혹은 교양미 넘치는 사람을 배출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어리숙해 보이고 언변이 어눌할지라도 따듯한 마음으로 이웃에 손 내밀수 있는 사람. 혼자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붙어 호흡을 맞추는 사람.

2015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그런 교육에의 꿈을 품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걸어온 길

The History of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2011

- 04.06.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준공
- 07.21. 수원시평생학습관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희망제작소)
- 07.22. TFT 구성 및 직원채용 공고
- 09.01.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 시작
- 09.21. 학습관 인터넷 및 블로그 개설
- 09.29. 학습관 문서관리시스템 엔터프라이즈 구축
- 10.07. 직원 워크숍 개최
- 10.10. 2011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작 (29개 강좌)
- 10.18. 학습상담실 운영 시작
- 10.20. 2011년 수원시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및 학습동아리실 이용 안내
- 10.21. 자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10.23.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정보망(홈페이지) 리뉴얼
- 10.24. 인문학북카페 카페담쟁이 운영 시작
- 10.25. 1기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시작
- 10.27.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시작
- 10.28. 수원시평생학습관 개관
- 11.01. 학습관 대관 시작
- 11.02. 2011년 수원시민인문대학 시작 (최재천, 윤구병, 박웅현, 제윤경 등)
- 11.05. 수원 소셜디자인스쿨 시작
- 11.14. 선재스님 명사특강
- 12.06. 2012년 겨울학기(1~2월) 수강생 모집 시작 (29개 강좌)
- 12.08. 영화평론가 유지나 명사특강
- 12.20. 평생교육기관 One-Day Workshop



2012

- 01.03. 2012년 겨울학기(1~2월) 개강(29개 강좌)
- 01.10. 청소년인문학 시작
- 02.20. 2012년 명사초청특강 시작
- 02.22. 2012년 담쟁이 문화살롱 프로그램 시작
- 02.27. 직원 워크숍
- 02.29.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03.05. 2012년 1학기(3~6월) 개강(81개 강좌)
- 03.08. 학습관 업무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축
- 03.10. 청소년 토요일교실 시작
- 03.14.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창간호 발간
- 03.22. 수원시민인문대학 협약 체결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 03.27. 수원모금전문가학교 시작
- 04.03. 수원재무관리사 양성과정 시작
- 04.06. 1기 수원시민인문대학 시작(10개강좌)
- 04.07. 어린이 토요일교실 시작(경제교실, 만화교실)
- 04.16. 누구나학교 협약 체결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 04.19. 수원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와글와글포럼 개최
- 04.21. 도요새책방 개관식 및 개관기념 특강(박원순 서울시장)
- 04.23. 도요새책방 상설 전시전 개시(시민개방)
- 04.25. 도요새책방 도서기증 및 관리 협약 (박원순 서울시장)
- 04.28. 길위의학교 시작
- 05.07. 강사 간담회 개최
- 05.09. 옥상텃밭 개소식
- 05.13. 해외사례 및 선진기관 벤치마킹(영국)
- 05.17. 누구나학교 1차 네트워크 파티 진행
- 06.01. 2012년 누구나학교 개강(23개 강좌)
- 06.09.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교실 시작
- 06.21. 도요새책방 시민광장 인문학 강연 시작
- 06.30. 도요새책방 특별 전시전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 07.02. 2012년 여름학기(7~8월) 개강(51개 강좌)
- 07.18.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10호 발간
- 07.25. 청소년 인문학 시작
- 07.30. UN자문위원 한비아 명사특강
- 08.2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협력사업 - 수원 교사인문학 아카데미
- 08.30. 도요새책방 관리프로그램 KOLAS III 설치 운영
- 09.0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수원시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외)
- 09.02. 2012년 2학기(9~12월) 개강(99개 강좌)
- 09.17. 수원시민인문대학 2기 시작(10개 강좌)
- 12.06. 고3 수험생을 위한 Start Up 20 프로그램 시작
- 12.14. 수원시민인문대학 2기 수료식
- 12.21. 3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12.26. 누구나학교 2차 네트워크 파티 진행

2012





2013



- 01.02. 2013 겨울학기(1~2월) 개강 (46개 강좌)
- 01.10. 고등학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쌈 1기 시작
- 01.16. 2013 명사특강 시작
- 01.30. 2013 담쟁이 문화살롱 프로그램 시작
- 02.06. 2013 찾아가는학교 시작
- 02.12. 평생학습상담사 간담회 실시
- 03.05. 도요새책방 함께읽기모임 시작
- 03.04. 2013 1학기(3~6월) 개강 (90개 강좌)
- 03.12. 평생학습상담사 2기 양성과정 시작
- 03.14. 2013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 시작
- 03.19. 인큐베이팅센터 개관 및 라온경제 입주식
- 03.20. 누구나학교 언제나 응원단 발족식
- 03.26. 누구나학교 오픈너 교육 실시
- 04.01. 수원시민인문대학 3기 시작 (10개 강좌)
- 04.01. 시민사회자료관 특별 전시전 (책 읽는 마을 이야기)
- 04.13. 도요새책방 1주년 기념행사
- 04.25.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제작 일상학습 심포지엄 개최
- 04.25. 평생학습상담사 2기 양성과정 수료식
- 04.30.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누구나학교 설명회 개최
- 05.05. 누구나학교 KBS 1대100 녹화 참여
- 05.07.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시작
- 05.13. 평생학습상담사 2기 활동 시작
- 05.21. 누구나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 모집
- 05.22. 누구나학습마을 학습코디네이터 모집
- 05.29. 수원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2기 시작
- 06.01. 평생학습아카이브 와 홈페이지 및 누구나학교 홈페이지 개설
- 06.07. 2013 수원 학부모 아카데미 시작
- 06.08. 2013 필우 공원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다 개최
- 06.18. 1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06.28. 공동체 영화상영 (워커힐)

- 07.01. 2013 여름학기(7~8월) 개강 (88개 강좌)
- 07.01. 시민사회자료관 특별 전시전 (나에게 맞는 인문사회과학 도서는?)
- 07.05. 수원시민인문대학 3기 수료식
- 07.09. 누구나학습마을 관계자 간담회 진행
- 07.11. 누구나학습마을 만들기 선정 마을 발표
- 07.17. 누구나학습마을 학습코디네이터 선정
- 07.19. 누구나학습마을 학습코디네이터 활동 시작
- 07.25. 고등학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쌈 2기 시작
- 08.20. 수원SDS 협동조합 프로그램 시작
- 08.24. 누구나학습마을 (능실마을) 여는마당 개최
- 08.26. 누구나학습마을 (화서1동) 협약식 및 여는마당 개최
- 08.28. 누구나학습마을 (능실마을) 협약식 개최
- 08.29. 누구나학습마을 (매탄4동) 협약식 및 여는마당 개최
- 09.02. 2013 2학기(9~12월) 개강 (129개 강좌)
- 09.04. 수원시민인문대학 4기 시작 (9개 강좌)
- 09.06. 도요새책방 시사토크 시작
- 09.09. 생태교통 2013 페스티벌 참여
- 09.11. 도요새책방 도시생활자 프로그램 시작
- 09.13. 2013 수원시평생학습축제 참여
- 09.28. 지역기반 공정여행 프로그램 길위의학교 시작
- 10.02. 2013 수원교사 인문학 아카데미3기 시작
- 10.10. 인문사회학 세미나 시작
- 1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수상
- 10.28. 학습관 누구나숲 조성
- 11.04. 문화기획 워크숍 시작
- 11.07. 누구나학습마을 (조원1동) 협약식 및 여는마당 개최
- 12.06. 수원시민인문대학 4기 수료식
- 12.12. 커뮤니티댄스 발표회
- 12.19. 문화예술학교 발표회
- 12.19.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014

- 01.02. 2014 겨울학기(1~2월) 개강 (66개 강좌)
- 01.09. 고등학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쌈 3기 시작
- 01.23. 2014 명사특강 시작
- 02.05.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50호 발행
- 02.08. 시민사회자료관 상설전시 (사_람_册)
- 02.18.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 개최
- 03.08. 더느린삶 프로그램 시작
- 03.08.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프로그램 시작
- 05.16.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공동사업 제안서 발표
- 03.03. 2013 1학기(3~6월) 개강 (95개 강좌)
- 03.19. 2014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 시작
- 04.01. 수원시민인문대학 5기 시작 (7개 강좌)
- 04.01.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2기 기본과정 시작
- 04.04. 2014 1학기 길위의학교 시작
- 04.10. 수원 어린이경제감사 양성기본과정 시작
- 05.10. 시민사회자료관 상설전시 (정치모색 2014)
- 05.21. 공동체 영화상영 (밀양전)
- 05.21. 액티브 시니어의 제2의 인생학교 시작
- 05.29.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2기 심화과정 시작
- 06.16.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시작
- 06.18. 액티브 시니어의 제2의 인생학교 수료식
- 06.18. 2014 수원 학부모 아카데미 시작
- 06.27. 시민사회자료관 상설전시 (함께 읽기 모임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
- 07.01. 2014 여름학기(7~8월) 개강 (73개 강좌)






- 07.04. 수원시민인문대학 5기 수료식 북콘서트
- 07.09. 제2의 인생학교 미니어워즈
- 07.21.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심화과정 시작
- 07.24. 고등학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쌈 4기 시작
- 08.08. 인큐베이팅센터 추억디자인연구소 입주
- 08.27. 2014년 여름학기 함께읽기모임 책갈피파티
- 09.01. 2014 2학기(9~12월) 개강 (127개 강좌)
- 09.04. 워라도학교 TFT 결성
- 09.15. 수원시민인문대학 6기 시작 (7개 강좌)
- 09.19. 2014 2학기 길위의학교 시작
- 09.26.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개최
- 10.08. 2014 수원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시작
- 10.15.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평가워크숍 진행
- 10.20. 누구나학교 오픈파티 (카페 BTJ1040)
- 11.18. 인큐베이팅센터 스타트업컨설팅 진행
- 11.21. 시민사회자료관 상설전시 (나의 작은 박물관)
- 11.24. 제2의 인생학교 심화과정 강사교육
- 11.27. 더느린삶 네트워크파티
- 12.08. 인큐베이팅센터 소셜드림 프로젝트 CoCoCo 입주
- 12.09. 평생교육 유공 표창 수여
- 12.11. 문화예술학교 발표회
- 12.12. 누구나학교 네트워크파티
- 12.15. 2014년 2학기 함께읽기모임 책갈피파티
- 12.15. 누구나학교 강사를 위한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 12.17. 워라도학교 총회

2013

2014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4

허브 네트워크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누구나학습마을		3 마을	139 프로그램 4,697 참여
찾아가는학교 경제교실 및 공정여행		50 강좌	1,566 참여
일상 네트워크 사업의 새로운 모델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1 개최	257 참여 23 단체 협력
수원평생학습네트워크 와글와글포럼		5 진행	125 참여 15 추진기관
학습 및 행사를 위한 공간지원		195,505 (일평균 658명 이용)	
평생학습종합정보망 통합웹사이트 및 학습상담		839,413 통합웹사이트 이용	23,451 학습상담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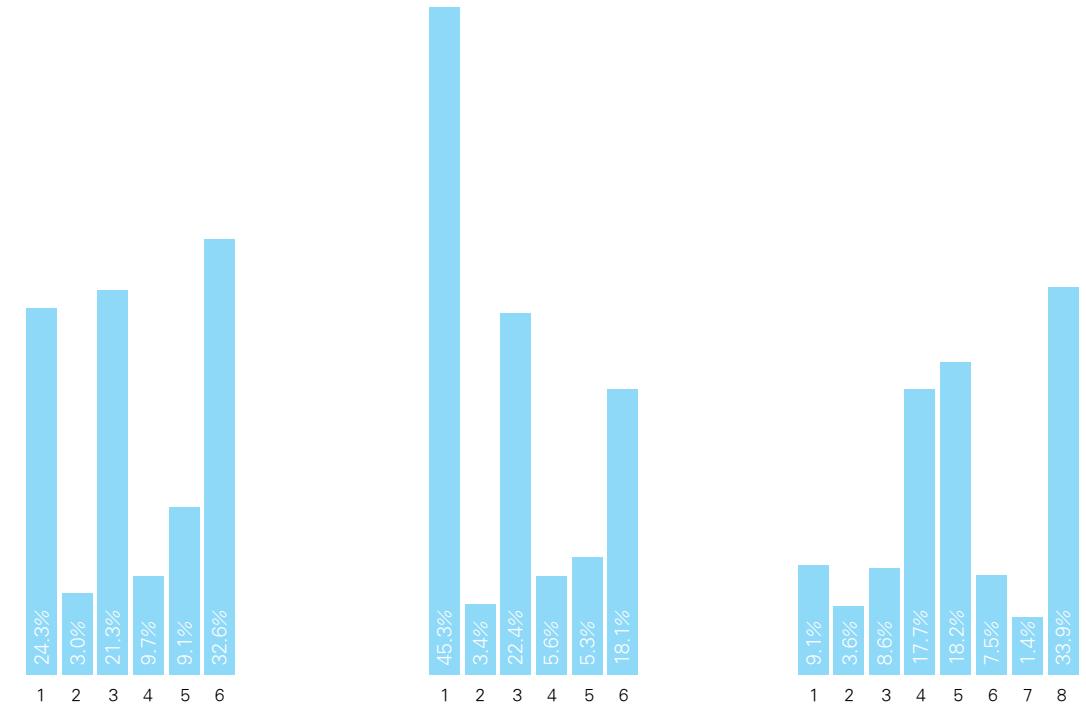
평생학습 싱크탱크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26 발행	7,276 구독
	평생학습아카이브(웹)	2,103 DB	532 일평균 접속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	1 개최	319 참여
	평생학습리더 학습모임	7 진행	12 참여
	매뉴얼, 보고서, 자료집	6 제작 배포	
시민주도 평생학습			
	누구나학교 및 누구나쌤	138 강좌	1,255 참여
	학습동아리, 학습모임 및 함께읽기모임	94 모임	1,253 참여
	인큐베이팅사업	7 팀(단체)	56 참여

**학기별
교육**

개설강좌
303

수강인원
9,721

<p>인문교양 수원시민인문대학, 예술인문학, 사회학세미나, 교육학세미나, 명사특강, 교사인문학, 학부모아카데미, 개인정보보호교육</p>	36 강좌	4,603 참여
<p>지역학 길위의학교</p>	11 강좌	413 참여
<p>지역리더 및 전문가 양성 수원 어린이경제강사 양성과정,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액티브 시니어의 제2의 인생학교,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시민기자교육</p>	10 강좌	235 참여
<p>스마트워크 아카데미 엑셀, 워드프레스, 프레지, 스마트폰 앱코디네이터, 인터넷 스토리텔링 마케팅, 비주얼씹킹 워크샵,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인포그래픽</p>	25 강좌	507 참여
<p>시민사회자료관 프로그램 마을열린극장, 말랑말랑 시사토크, 공동체 영화상영, 함께읽기모임, 읽고 토론하기, 너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 책거리파티</p>	40 강좌	716 참여
<p>사회통합 및 어린이청소년 영어 및 컴퓨터 기초,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강좌, 청소년 강좌</p>	53 강좌	926 참여
<p>더느린삶 및 수작업장 막걸리교실, 평화가 깃든 밥상, 식초교실, 약초교실, 동네수작업장</p>	18 강좌	509 참여
<p>생활문화 외국어, 음악, 건강체육, 사진, 글쓰기, 문화예술학교</p>	110 강좌	1,812 참여



주제영역별 강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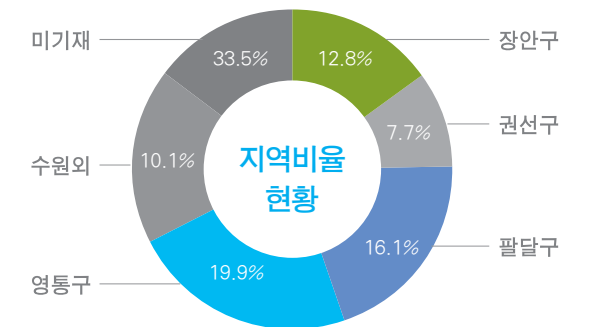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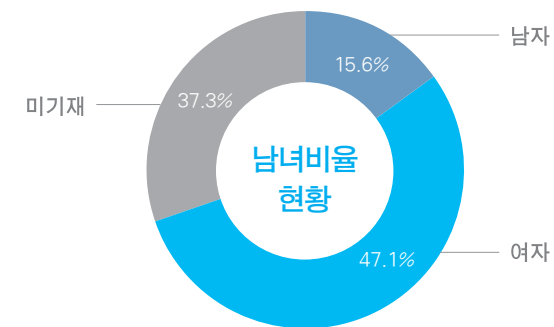
- 1 인문교양
- 2 지역특화
- 3 시민참여
- 4 직업능력
- 5 사회통합
- 6 문화예술

주제영역별 수강 현황

- 1 인문교양
- 2 지역특화
- 3 시민참여
- 4 직업능력
- 5 사회통합
- 6 문화예술

연령비율 현황

- 1 20대 미만
- 2 20대
- 3 30대
- 4 40대
- 5 50대
- 6 60대
- 7 70대 이상
- 8 미기재



2014

이렇게 일했습니다

學而時習之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친구가 먼 곳에서 오면 어찌 즐겁지 않으랴

누구나학교 그리고 누구나학습마을

지역협력사업

싱크탱크

인문학 프로그램

전문가 및 지역리더 양성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더느린삶

생활문화 프로그램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

반딧불이상담실

담쟁이카페

누구나학교 그리고 누구나학습마을

누구나학교

2014년 누구나학교는 136개 강의가 열렸고 1,214명이 참여했다. 누구나학교에서는 여행길잡이, 환경지킴이, 아티스트, 바리스타, 시민기자, 직장인, 가야금전공자, 뮤지켄, 주부, 중·고등학생 등 평범한 우리이웃들이 때론 선생님이로 때론 학생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재능, 삶의 지혜를 공유했다.

<러시아완전정복>의 경우 수원외고 교사가 시작한 수업이지만 이후에는 수원외고 학생이 이어서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릴레이 토요일기타교실>은 <커피향기 나는 톱기타교실>에 참여한 사람이 배운 내용을 다시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강좌를 진행한 경우였다.

누구나학교에서 강의를 열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12월 15일~16일 <누구나학교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교육이나 모임방식을 새롭게 성찰해 보는 시간으로 '배움과 소통의 공동체 만들기', '소통과 관계', '일상의 대화와 갈등', '토론과 회의', '소통과 배움', '진행자 되기'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누구나학교 강사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며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소통하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누구나학교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벗어나 복지관, 노인회관, 마을, 학교, 타지역 등 어디서나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단위에서 활발하게 참여하였는데 가장 큰 규모로 7월에 <수원외고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가 개최되었다. 1~2학년 학생 431명 전체가 집단적으로 참가하였다. '자습 째는 법', '기숙사에서 라면 안 걸리는 법', '심리학', '현대철학', '스탈린의 경제정책' 등 청소년다운 생기발랄한 주제에서부터 깊이 있는 주제까지 다루어졌다. 또

한 12월에는 <영일중학교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가 개최되었는데 1학년 학생 247명 전체가 참여하였다. 수원이 아닌 타 지역에도 누구나학교의 내용과 방법을 알려나갔다. 전북 익산의 시민단체 익산희망연대와 협약을 맺고 <익산누구나학교>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벤치마킹을 넘어 누구나학교의 취지, 목적과 방법을 공유하고자하는 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학습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누구나학습마을

'누구나학교'와 '마을'이 만나 누구나학습마을을 꾸린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누구나학습마을에서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습공간을 찾고 연결했다. 이웃끼리 알고 지내는 관계가 점차 늘어가고, 숨어있던 주민의 재능을 찾아내니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 점차 증가되었다. 아직은 소소하지만 지식의 전수나 교환을 넘어 삶의 공유를 통한 지역 변화의 가능성도 조금씩 움트고 있다. 2014년에는 3개의 누구나학습마을이 운영되었고 138개 프로그램에 1,255명이 참여하였다.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마돈나돈가스, 주공뉴타운내 산내읍도서관, 드림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녹색가게, 새마을문고, 광고산휴지기, 대추동이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주공2단지 정문 앞 공원, 청련암 등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졌다.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특히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동네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다시 또래 친구들을 가르치는 순환형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내 아이, 내 가족을 벗어나 이웃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장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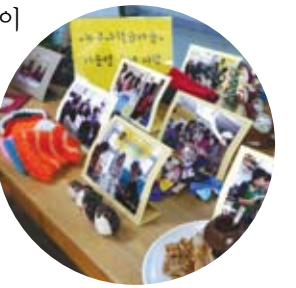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자치적인 마을 움직임이 많은 화서1동은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면서 활동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화서신용협동조합, 수원다문화도서관, 영광문고회, 새마을부녀회, 마중물, 푸른 숲아파트문화공간추진위원회 8개의 단체가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으로서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꾸려간다.

연중 다양한 강좌들이 운영되었는데 특히 다문화도서관에서 열리는 <누구나 책읽기>, 20대부터 70대 여성이 고르게 참여한 <대바늘 코바늘 뜨개모임>,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인 <친환경 화장품/소이 캔들> 등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에는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온라인카페 운영, 12월 사진전시회 지원 등을 함께하였다.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경로당어르신, 다문화여성,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 50대 여성, 정년퇴직한 남성 등 다양한 주민들이 모임과 강좌를 만들었다. <수다로 푸는 다문화 이야기>, <8학년, 우리들의 미술시간>, <다문화 우리동네 알아보기>, <청소년 동네한바퀴>, <산드래미 토박이 어르신에게 듣는 마을이야기>, <도란도란 팔색길 탐험>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었다.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라며 참여를 주저했던 경로당 어르신들은 6개월간의 노력 끝에 12월 <8학년 우리들의 전시회>를 열기도 하셨다.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은 사람과 사람이 얽히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나쌤

<누구나쌤>은 고등학생들이 모여 서로 떠들고 꿈꾸며 자신의 재능을 찾아보고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소셜네트워크 찾기, 창의력 게임, 배우고 싶은 것 가르치고 싶은 것 찾기, 누구나쌤 되기 등의 내용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 2회 진행되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서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공동체성, 리더십과 성취감,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가졌다. 2015년에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누구나학교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누구나학교 청소년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협력사업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살아 숨쉬는 '사람책' 25명과 수원시민 185명이 만나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렸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등 23개의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한 <휴먼라이브러리 수원>은 9월 26일(금)~27일(토) 수원시평생학습축제가 열린 행궁광장에서 개최됐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이해와 공감을 높인다'는 공동의 목적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수원시민들의 편견조사부터 사람책 섭외까지 총5개월의 기간을 거쳐 준비됐다. 사람책으로는 전직폭력배에서 새터민까지 다양한 편견의 대상이 됐던 당사자들로 구성했다.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참여단체들은 수원에서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휴먼라이브러리 수원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남문청소년모임 꾸나, (주)더페이퍼,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수원KYC, 수원KYC 화성길라잡이, 수원시평생학습관,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수원지역모임, 한벗연구소, 희망샘도서관,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교육분과(무봉종합사회복지관, 수원YWCA,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체육문화센터, 수원탁틴내일,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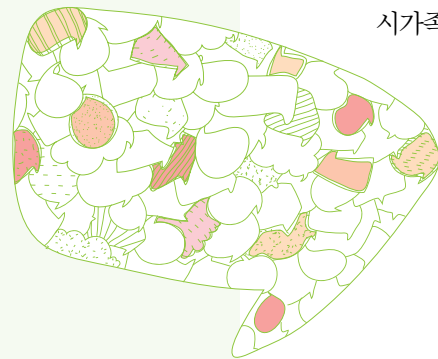




와글와글포럼

와글와글포럼은 15개 추진기관이 주체로 40명의 실무자가 3월부터 11월까지 5차 포럼(총 20시간)을 진행했다. 기획포럼을 시작으로 총3차 주제포럼을 추진했다. ‘평생학습이란’, ‘평생학습 평가방법’, ‘학습자들을 자발적 모임이나 참여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본개념 정리, 목적, 목표, 기획, 실행, 방법, 기획자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등을 매회 주제 포럼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11월 19일 <와글와글 열린포럼>에서 그 결과를 나누고, 평생학습실무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와글와글포럼을 통해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는 공통가치를 발견하며 함께 한 경험으로 수원시 평생학습의 단계가 한층 더 성숙해 질 것을 기대해 본다.

15개 추진기관은 다음과 같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수원YMCA, 수원시교육청소년과,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제일평생학교, 수원체육문화센터,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인계동주민자치센터, 장안구민회관.



찾아가는학교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학교가 2014년에는 수원 화성을 탐방하며 공정여행을 체험하는 <우리마을 착한여행>과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경제교실 <똑똑경제 탄탄미래>를 운영했다. 올바른 소비습관을 갖고 스스로 미래설계, 노후설계를 하도록 돕는 똑똑경제 탄탄미래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1,813명이 참여하였으며 명인초, 신영초, 석우중, 매탄초, 연무초, 대평초, 효정초, 동수원초, 대선초, 태장동주민센터, 장안구민회관,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22개기관 166차의 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을 돌며 수원에서 공정여행을 즐겨보는 우리마을 착한여행은 《한살림》과 《작은도서관》 등에서 참여했다. 2015년에는 모데레이터, 디지털자서전 등 새로운 내용으로 교육이 필요한 곳 어디나 찾아갈 것이다.



싱크탱크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이하 동향리포트 와)는 2014년 총26회, 제73호까지 발행(격주 수요일)되었다. 2012년 3월 창간한 동향리포트 와는 평생학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평생교육학자 및 전공자, 수원시민 등 7,849명(2014년 12월 기준)이 메일을 통해 구독하고 있으며,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기사를 읽고 활용하고 있다.

동향리포트 와는 국내 평생교육학자 인터뷰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교육 및 사회혁신 사례, 국내 평생학습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육, 인문사회,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평 등 폭넓고 깊이 있는 기사를 생산하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평생학습계의 고민과 실천에 대한 성찰(2편), 일상시민교육 방법론으로서의 휴먼라이브러리(7편) 등 기획기사를 통해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입장을 견지하는 평생학습계의 전문 매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평생학습아카이브 '와'

평생학습아카이브 와(wa.suwonedu.org, 이하 아카이브 와)는 평생학습 분야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 자료들을 모아놓는 웹사이트로, 교육 이외에도 책, 영화, 전시 리뷰 등 기사 영역을 확장하며 콘텐츠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2013년 6월 오픈한 아카이브 와는 2013년 하루 평균 방문객 370명에서 2014년에는 하루 평균 568명이 방문, 65% 증가하였으며, 페이지뷰는 1,464,604건에서 4,034,605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

수원시평생학습관, 희망제작소, 국회도서관이 공동주관한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Ronni Abergel) 초청강연 및 휴먼라이브러리 컨퍼런스>는 2월 15일(토), 18일(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틀 모두 로니 애버겔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세



션(2/15)에서는 사람책을 직접 만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였고, 수원세션(2/18)에서는 국내 단체들의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사례(노원휴먼라이브러리, 숨쉬는 도서관, 서울숲리빙라이브러리)를 발표하였다. 특히 2월 18일 심포지엄에는 300여명의 평생학습기관 및 도서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하여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에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치와 철학을 알리고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상 시민교육 방법으로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평생학습리더 공부모임

평생학습 현장 리더 12명이 2014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공부모임(총6회)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평생교육학회장 김민호 교수(제주대)를 좌장으로, 평생교육계의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현황 점검, 쟁점, 고민 사항 등 시민교육을 둘러싼 이슈와 현상 등



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향후 공부모임의 내용과 결과를 평생학습기관 및 실무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일본의 평생학습을 만나다

정성원 관장, 임성미 기획팀장, 이보라 연구원은 2014년 1월 22일(수)~26일(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평생학습기관 탐방을 다녀왔다.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제50호 발행에 맞춰 일본사회교육학회장(다카하시 미쯔루)을 인터뷰하고, 2014년 학습관 전략사업인 시니어사업과 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시니어 SOHO 보급살롱 미타카》, 《시니어 대락(大樂)》,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시민관》, 《세타가야 생활공방》 등을 견학하였다. 또한 수도권대학교 강연, 공민관학회 이사진 강연 및 미팅을 통해 수원시평생학습관 주요 사업을 알리고 해외 교류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비롯한 탐방 내용은 동향리포트 와에 연재기사(2회)로 실어 많은 이들과 공유하였다.



수원시평생학습관 이용자 설문 조사

2014년 11월 한 달 동안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 학습동아리 회원, 카페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700여명이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학습관 이용 목적, 선호하는 프로그램 내용, 교육 방법, 학습 시간, 개설을 원하는 프로그램 등 이용자의 욕구는 물론이고, 학습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편의사항 만족도, 평생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는 이후 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설계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학습공동체를 위한 『모더레이션 매뉴얼』

모더레이션이 필요한 학습현장이라면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북을 발행하였다. 모더레이터 양성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으로 모더레이션의 기본 개념부터 소통과 갈등중재, 참여와 몰입, 진행과 의견정리 방법 등 다양한 기법이 수록되어있다. 매뉴얼은 '평생학습아카이브 와(wa.suwonedu.org)'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인문학 프로그램



수원시민인문대학 5기, 6기

〈수원시민인문대학〉은 2012년 1학기에 시작되어 2014년 6기까지 진행된 3년 계속 프로그램이다. 일회성 대형 강연을 벗어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과 함께 그룹별 강좌를 꾸렸다. 총 51개 강좌, 연인원 13,560명이 함께 했으며 후속모임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4년도에는 동서양 철학, 역사, 문화예술 등 분야별로 상하반기 총 14개의 강좌가 각 12주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동서양의 고전 외에도 새롭게 글쓰기 영역의 프로그램 〈리뷰/칼럼 쓰기〉, 〈세상을 향한 글쓰기〉 등이 보장되어 쓰기의 내공을 키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버렸다. 그 외에도 〈처음 읽는 현대철학〉 시리즈, 〈마을 상상하는 인문학〉, 〈철학자가 사랑한 그림〉 등 다양한 토픽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며 많은 시민들과 같이 호흡했다. 이후 인문학 프로그램은 이러한 수원시민인문대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예정이다.

인문학 세미나

사회학, 교육학, 정치경제학으로 나뉘어 진행된 인문학 세미나는 크게 묶어 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사유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주대학교 노명우 교수와 함께 〈세상물정의 사회학〉에서는 상식, 가족, 노동, 취미 등 개인의 곤란함으로 생각하기 쉬운 주제들을 공적 이슈와 연결시켜 해석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탁네트워크 이희경 선생님의 〈학교 너머의 배움을 찾아서〉에서는 제목 그대로 학교와 교육에 대한 기존 프레임을 고찰하고 그 너머 배움을 탐색하였다. 〈미고츠키, 불협화음의 미학〉에서는 신라대학교 박동섭 교수를 따라 무반성적으로 생각하던 심리와 인지를 낮설

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 진행한 〈살림/살이의 경제를 위하여〉에서는 돈벌이 경제학과는 구별되는 살림살이 경제의 개념을 공부하였다. 그를 통해 인간의 욕망, 부의 의미, 소비 욕구, 생산 능력의 발전 등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우리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의제화하는 자리는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예술인문학

여름/겨울학기에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문학 시리즈에서는 문화평론가 정윤수와 함께 음악 선율 속 시대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먼저 겨울학기에는 <클래식 속의 역사, 역사 속의 클래식> 4차례 강좌를 통해 클래식의 세계에 풍덩 빠져보았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클래식 감상과 음악이론에 집중한다기보다, 유려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작곡가들이 그들의 시대를 어떻게 끌어안았으며 클래식이 어떻게 소비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읽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여름학기에는 <한 여름의 재즈, 그 미학을 찾아서>가 5회 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재즈의 탄생, 모던 재즈, 1960년대 극단적 실험과 저항, 재즈가 다양한 갈래로 펼쳐져 나가는 흐름을 따라가 보았다. 재즈가 '아늑한 카페의 배경음악'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진짜 재즈'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이로써 파악할 수 있는 재즈 미학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인문학의 밤 : 북 콘서트

2014년에는 새롭게 <인문학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 텍스트로 하여 북콘서트 형식으로 꾸러졌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혹은 사면 안 되는 것이 있을까?”라는 물음 속에 열띤 논의가 펼쳐진 장이었다. 세월호 사건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실천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좀 더 진지하게 인문사회학이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준비된 행사였다. 거기에 기존의 인문대학 등 한 학기 인문학 프로그램에서의 배움을 마무리 하는 자리가 결합되었다. 개별 반들의 경계를 넘어 인문학 강좌 수강생들이 한 학기의 배움을 마무리하고 이야기 나누며 공론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만들 수 있었다. 기존 참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학습관 인문학 프로그램을 알리고 참여를 권하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인문학 프로그램 후속 모임 구성원들이 직접 패널로 참여하여 각각의 논의 주제에 대해 준비, 발표하고 플로어의 참여자들과 활발한 토론 나눴다는 점에서 뜻 깊은 자리였다.

교사인문학아카데미 4기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사인문학아카데미>가 올해로 4기를 맞아 '지속 가능한 담론'이라는 주제로 10월 8일부터 12월 3일(8회)까지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매년 수원 지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등 다양한 영역의 인문학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였고 수원 지역 교사 24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수는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창의지성 수업 능력을 증진시키고, 교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교육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 인문학아카데미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 <2014학년도 수원학부모인문학 아카데미>는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초등학부모 49명과 중등학부모 47명을 대상으로 각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근대성과 근대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스승들의 사유와 만나며, 어느새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가 되어 버린 우리의 상투적인 삶과 사유의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명사특강

명사특강은 매월 1회 사회 각계 명사를 초청해서 이 시대 화두를 생각하고 성찰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에는 <강신주의 철학이 필요한 시간>, <진중권의 현대미학으로 세상 읽기>, <김진만의 세상 끝에서 미래를 만나다>, <송효상의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김두식의 인권 나의 욕망, 너의 인권>, <이석영의 우주속의 나>, <오연호의 행복사회의 리더십, 덴마크에서 배우다>, <서민의 기생충과 인간사회>, <윤대현의 마음성공, 새로운 삶의 프레임>, <유시민의 나의 한국 현대사>, <고미숙의 근대성과 운명>을 주제로 11회차 강연과 연 3,57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길위의학교

<길위의학교>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학기에는 4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6차시) 진행되었으며, 수원의 역사, 문화, 마을, 생태, 사람을 찾아 떠나는 지역기반 공정여행을 테마로 효행길, 화성 성곽길, 지계길, 모수길, 화서, 수원둘레길을 답사하였다. 2학기에는 9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5차시) 진행되었으며 처음으로 수원지역을 벗어나 답사가 이루어졌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조선시대의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조선왕릉, 창덕궁, 종묘, 수원화성 등을 학자들과 함께 둘러보며 문화유산의 경이로움과 생생한 감동을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전문가 및 지역리더 양성



액티브시니어사업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시니어의 시대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2014년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제2의 인생학교>를 시작하였다. 교육은 5월 21일부터 6월 18일(8회차)까지 진행되었고 40명의 시니어가 참여하였다. 인생학교의 기본과정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일을 찾고 개인의 욕구에 따른 제2의 인생설계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보수심화교육으로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과 미니어워즈 개최, 강사발굴을 위한 강사교육, 사업아이디어 컨설팅 등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번 1기 수료생이 모여 《뭐라도학교》를 발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시니어들의 여가생활부터 일자리연계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여행기 양성과정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공정여행사 (주)트래블러스맵이 주관하는 <공정여행기 양성과정> 2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었다. 이번 교육은 공정여행에 대한 이해, 국내외 사례 탐구 및 답사, 공정여행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조별과제, 여행 기획안 작성 실습 등의 내용으로 60시간의 기본과정과 48시간의 심화과정, 컨설팅 3단계로 진행되었다. 강사진은 (주)트래블러스맵 변형석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공정여행 기획자들, 수원마을르네상스 이근호 센터장, 한신대 김준혁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자들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공정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컨설팅, 국내 공정여행 상품개발 및 판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여행 프로젝트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수원 어린이 경제강사 양성과정

어린이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교과를 재밌게 배우고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경제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수원 어린이경제강사 양성과정>이 2014년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54시간) 진행되었다. 이번 과정은 '라온경제교육협동조합'과 '청소년경제교육센터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하였고 35명이 참여하여 28명이 수료하였다. 이후 '라온경제교육협동조합'이 주관한 35시간의 심화과정을 마친 경제강사들은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학습모임을 만들어 재능기부 강의를 하고 찾아가는학교 <똑똑경제 탄탄미래>를 진행하는 등 함께 공부하고 훈련하며 바쁜 한해를 보냈다.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모더레이터는 도구와 기법을 활용해 의사소통과 학습을 풍요롭게 설계하여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모더레이터 양성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주)공간일상'과 함께 진행하였다. 기본과정을 통해 총 8회 24시간의 과정을 이수한 35명의 모더레이터가 양성되었다. 컨설팅으로 진행된 심화과정을 마친 모더레이터 6명은 모더레이션 비영리단체 '소셜드림 프로젝트 CoCoCo'를 설립하여 학교현장과 지역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015년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하여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프로그램 평가자료를 참고로 수업의 지식영역, 계획영역, 실천영역, 전문성영역에 따라 모니터링 평가틀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찾아가는학교>에 집중하여 6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였다. 2014년 3월에는 찾아가는학교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모니터링 후에는 사후협의회를 열어 모니터 결과를 강사와 공유하여 수업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은 더욱 확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문 평가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시민기자 및 아카이브 필진



평생학습 및 교육에 관심있는 수원시민을 중심으로 시민기자를 모집, 6명의 시민기자가 2014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수원시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리뷰뿐 아니라 평생학습기관 소개, 교육 프로그램 후기, 마을 행사, 공동체 활동 등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이외에도 평생학습 전공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생학습아카이브 필진(6명)은 관련 책 소개, 누구나학습마을 기획기사 등 평생학습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실습과정

예비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에서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서 접수 후 매일 한 명의 실습생을 선발하여 교육과 업무 실습을 병행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각 담당자를 멘토로 하여 기본교육을 진행, 업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실습이 단순한 업무 지원에만 그치지 않도록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의 실무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인턴을 위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인큐베이팅센터

인큐베이팅센터는 학습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생이 공익적 일자리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3월에 개소하였다. 2013년 입주한 '라운경제교육협동조합'과 '공정여행협동조합 마이플래닛'은 1년 만에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여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네트워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시니어 사업단 '추억디자인연구소'와 모더레이터 단체인 '소셜드림 프로젝트 CoCoCo'가 추가로 입주했다. 인큐베이팅센터에서는 입주 기업들의 활동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월, 5월, 8월, 12월 4차례에 걸쳐 분기별 반상회를 진행하였다. 11월~12월에는 사업단의 경영이슈 진단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전문가 컨설팅>이 있었다. 컨설팅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과 우려되는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실무스킬업과정

기획과 표현력을 향상하고 회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인포그래픽>, <피피티보다 잘나가는 프레지>, <회의를 집중시키는 퍼실리테이션 게임>, <비주얼씽킹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업무 트렌드로 모두 시각적인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단기 워크샵 형태로 익히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양한 업무 종사자들에게 모두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많은 수강생들의 호응이 있었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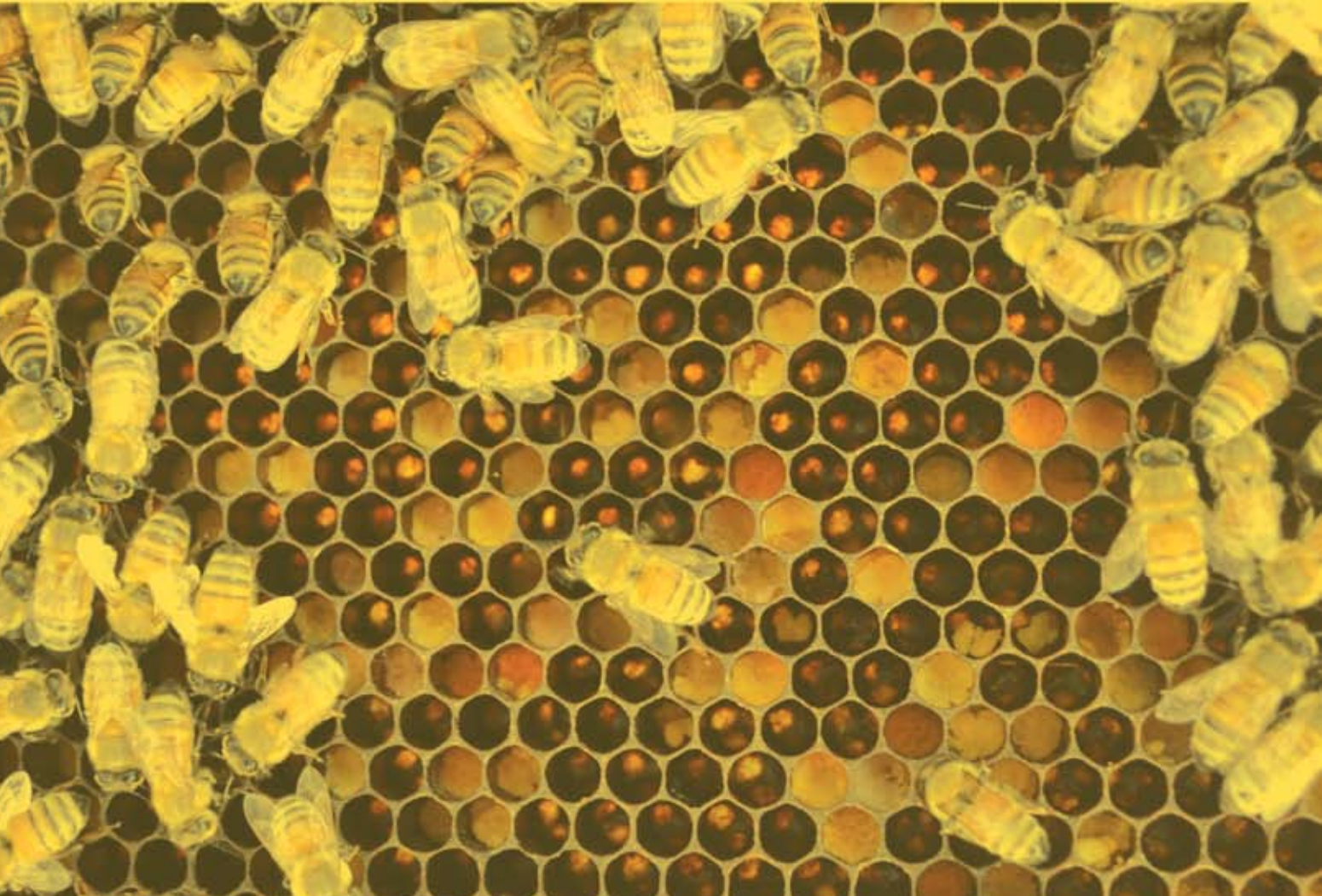
스몰비즈니스과정

작은 단체나 기업을 위한 저비용 홍보 방법인 <인터넷 스토리텔링 마케팅>, <프로 블로거 프로젝트>,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워드프레스 초급>을 운영하였다. 인터넷 홍보에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단체나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1학기에는 이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를, 2학기에는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블로그와 홈페이지가 필요한 기업이 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를 진행했다.

시니어 미디어 리터러시과정

시니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의 달인, 앱코디네이터>가 진행되었다. <스마트폰 기초 활용과정>, <스마트 라이프 과정>, <앱코디네이터 과정>의 총 3단계로 기초적인 스마트폰 활용부터 스마트 라이프를 즐기고, 이를 각 분야별 필요한 앱을 제안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하였다. 1학기는 총 7회 26시간의 강좌로 이루어졌으며, 2학기에는 과정을 더욱 보완하여 보조강사로 3명으로 늘리고 총 13회 38시간의 강의로 심도를 더하였다. 특히 1학기 수료생이 2학기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등 시니어강사로의 진입도 이끌어내었다.

삶의 기술 프로그램



더느린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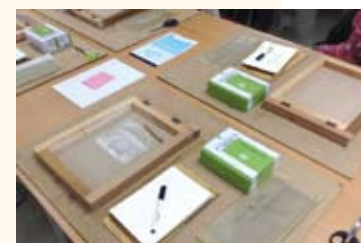
더느린삶은 일상 속에서 친환경과 느린 삶을 실천하는 방법과 지혜를 찾는 강좌이다. <건강 텃밭교실>과 <Bee Happy! 도시양봉가 되기>에서는 친환경 농법과 양봉을 배우고 더불어 도시생태환경 개선과 자급자족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막걸리교실>을 시작으로 2013년 <전통주교실>에 이어 2014년에는 <식초교실>을 더하였다. 우리 전통 발효 과학의 지혜를 배우며 발효의 기초단계인 막걸리부터 최종단계인 식초까지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빛은 술과 종초를 나누며 서로 소통하는 정다운 자리를 만들었다. <약초교실>과 <평화가 깃든 밥상>은 주변의 흔한 풀, 꽃, 뿌리, 열매를 약초처럼 이용하는 방법과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둔감해진 미각을 살려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지혜를 공유하였다.



또한 <더느린삶 네트워크 파티 우리 만나!>를 열어 각 강좌의 수강생이 함께 모여 느린 삶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서로 이야기 하며 소통과 배움의 장을 넓히는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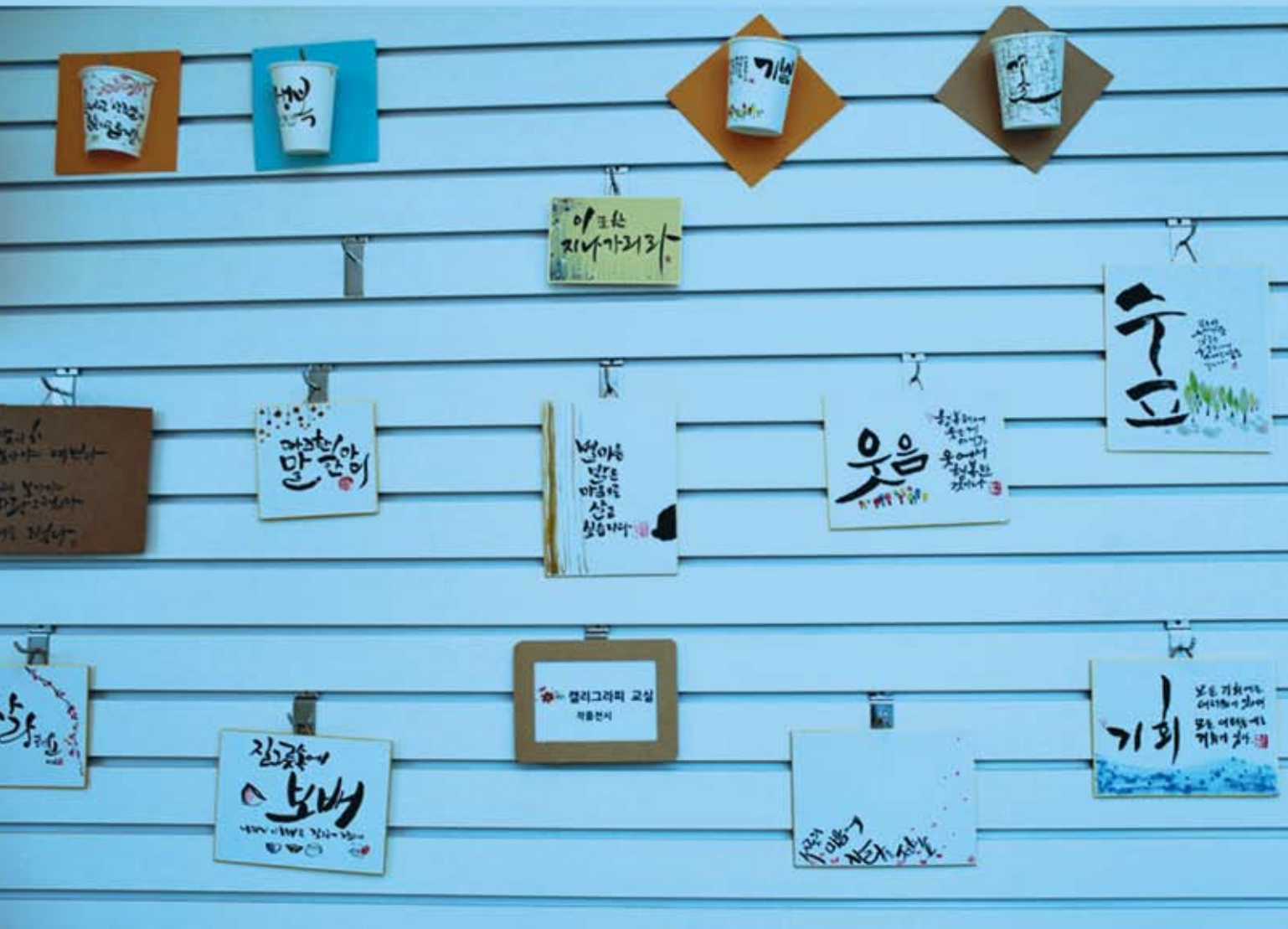
동네수작업장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차년도 작업 공간 구성을 위한 실험실로서 여름학기 1학과 2학기에 워크숍이 이어졌다. 여름학기 <더치도구만들기 워크숍>은 간단한 생활목공을 통해 커피 추출도구를 제작 했다. 공동제작의 경험과 더불어 함께 만든 도구에서 직접 내린 더치커피로 다양한 여름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2학기 워크숍에선 세 가지 꼭지로 진행되었다. 문화연대 임정희 공동대표의 특강으로 <핸드메이드의 철학적 해석>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웃문화협동조합과 <랩프 제작>을 하며 손작업의 재미를 맛보았고, 지역 놀이 공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또 청개구리제작소와 함께한 <등사인쇄 워크숍>에서는 사라져가는 미디어를 복원해보며 만들기의 가능성을 엿봤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그룹과 함께 만들기의 여러 가지 결을 탐험하였다. 각 워크숍은 만들기의 다른 양상. 하지만 익숙하게 늘 보던 것들 속에서 인식조차 되지 않던 다른 지점을 볼 수 있게, 혹은 보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작업장과 협동작업을 통한 시민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생활문화 프로그램



문화예술학교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강좌로 <드로잉>, <캘리그래피>, <뮤지컬강좌>가 운영되었다. 드로잉과 캘리그래피는 계절학과 1·2학기 강좌에 차별을 두어 진행하였다. 드로잉의 경우 계절학기에는 워크샵 형태로 운영되고 1·2학기에는 다양한 기법의 드로잉 수업을 진행하였다. 캘리그래피의 경우 계절학기에는 부채 같은 실용가능한 작품을 만들었고 1·2학기에는 전각도장을 만들어 작품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완성도를 더하도록 했다. 2014년 1학기부터는 드로잉과 캘리그래피는 직장인반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뮤지컬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뮤지컬공연을 열어 1년간 연습한 무대를 선보였다. 드로잉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학습자들끼리 교류하고 11월 말에는 화성행궁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어린이/청소년강좌

어린이강좌는 <만화교실>과 <동요교실>이 운영되었다. 만화교실의 경우 계절학기에는 자유롭게 놀고 그릴 수 있도록 하였고 1·2학기에는 만화의 요소를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차별적으로 구성하였다. 동요교실은 저학년반과 고학년반으로 운영되었다. 저학년은 동요보다 가요가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예쁜 가사의 노래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고학년은 성악의 발성, 호흡법, 자세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강좌로는 <포크기타>가 운영되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기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궁동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하고 개인별 연주 발표 및 CD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이 연계되었다.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취미교양강좌

컴퓨터(기초, 엑셀, 편집), 외국어(기초영어, 영어회화, 뉴스읽기), 악기(우쿨렐레, 드럼, 기타), 건강체육(댄스스포츠, 요가), 사진, 글쓰기 강좌로 분류되어 총170개 강좌가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된 <영자신문 뉴스읽기>는 기존 영어학습 방법을 벗어나 해외 주요언론의 기사를 발췌하여 함께 독해하고 세상을 읽어내는 시야를 넓히는 공부로 진행되었다.

발표회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발표회가 이루어졌다. 캘리그래피반, 드로잉반, 우쿨렐레반, 클래식기타반, 글쓰기반, 영어반, 뮤지컬반 수강생들이 함께 한 <우리 함께 발표회>가 12월에 담쟁이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전시, 연주, 낭송, 합창,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회가 이루어졌으며 준비부터 진행까지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뮤지컬공연반과 클래식기타반은 각자 독자적으로 공연과 콘서트를 준비하여 연주회를 마련하였다.



학습모임 & 동아리



인문학 학습모임

이곳저곳에서 책 읽기 모임이나 함께 공부하는 작은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작은 공유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러 목마름이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면서 생긴 관계는 단순한 친목 모임 이상의 활력과 삶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온다. 더 깊이 있게 배움을 나눌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도 독서모임, 토론 모임 등 인문학을 매개로한 교육 후속 학습모임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민인문대학 후속 모임으로 결성된 '인문대학 독서 모임'은 십수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철학, 역사서의 산을 함께 오르고 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서동은 교수가 모임의 멘토로 함께하고 있다. 주제별로 강사를 초빙하며 특강을 듣기도 했다. 그 외에도 사회학, 경제학 세미나 후속 모임, 교육세미나 후속 모임 등도 관련 책, 영상물 등을 보며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다.

학습동아리

수원시학습관의 동아리사업은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와 협력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진행된다. 동아리 보조금 사업이나 워크숍 등은 수원시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학습자들이 정기적인 모임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임공간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교육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발적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로 동아리 공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동아리 대표자들이 같이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2014년 12월 현재 60여개의 동아리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은

인문사회 분야 중심의 자료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실 속의 고민을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곳이다. 그 동안 대안의 삶, 생활밀착형의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어 이웃들과 함께 고민점을 나누고 좋은 삶의 길로 풀어내는 곳으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 12월 기준 총 16,202권의 도서와 30,863건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함께읽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과 함께 4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가 하나의 함께읽기 모임원으로 구성되어 낭독하며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 속에서 책방 주인이 권하는 도서를 비롯 시민들이 희망한 책을 모두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였다. 전문분야(경제, 법, 학술인문, 정치)의 경우 이해를 도모하는 책길잡이가 함께하기도 하였다. 그간 19권의 책들이 120여명의 인문학적 소통에 디딤돌이 되었다.

다음은 함께읽기한 책 목록이다. 『감정수업』, 『부모로 산다는 것』,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핀란드부모혁명』, 『피로사회&투명사회』, 『불황10년』, 『원서 겨울왕국』, 『원서 어린왕자』, 『조건없이 기본소득』,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로스쿨의 영화들』, 『총균쇠』, 『고도를 기다리며』, 『투게더』,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나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

함께 읽고 실천하자는 모토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의 결과물을 출판한다. 이번 2학기에 처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나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는 일상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기록집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사진, 드로잉, 손글씨, 녹취, 워드 등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각자의 기록 전략 플랜에 맞춰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이웃과 공유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인생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하여 차곡차곡 쌓이게 된 기록집은 스캔북으로 발간하였고, 출판기념회라는 작은 북콘서트도 진행하였다.





**튜터와 함께하는
읽고 토론하기**

서로 다른 옴을 이해하고, 더 나은 변화를 상상하기 위하여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8회 동안 '끝없는 욕구'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관련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레가토』,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박완서 단편선』 등 5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아닌 우리끼리 하는 토론수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비폭력대화 관련 토론워크숍을 수강하였으며, 토론을 이끌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김은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튜터가 함께 하였다.

책거리 파티

책을 다함께 읽어냄을 축하한 day! 책과 연결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이웃을 알아가기도 하고, 기존의 이웃과는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공유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고 공유의 책 장터를 열었으며, 북아트(책갈피/책도장)를 함께 해보는 등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하였다.

말랑말랑 시사토크

진행자 버거비씨와 초대게스트가 시의성 있는 의제를 매월 1회씩 리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통찰적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자는 다양한 언론사들의 뉴스를 브리핑하고, 초대게스트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스토리텔링하였다. 민영화, 시간선택제, 개인정보유출, 국정원, 세월호, 연금, 동아시아 정세, 군대, 일베, 세금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올해는 처음으로 칠보산마을로 직접 찾아가 마을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사토크를 접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마을열린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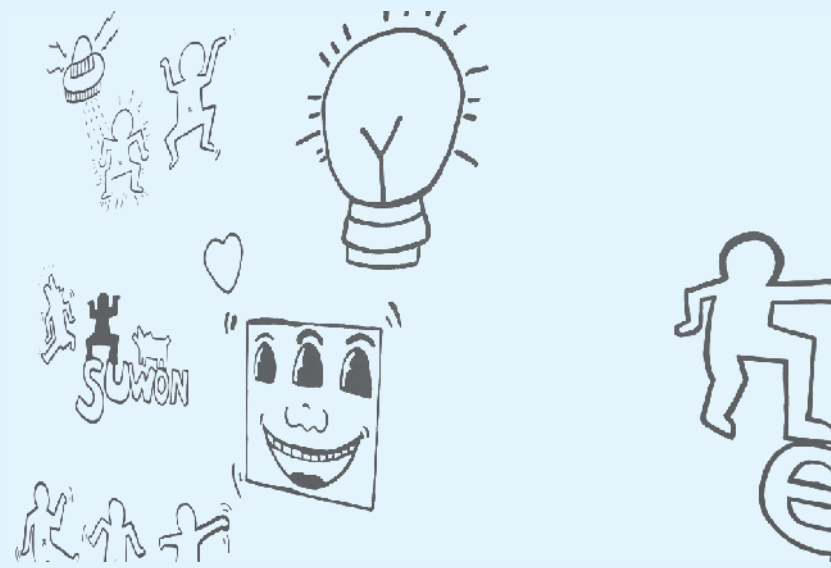
현실을 바로보기 위한 다큐멘터리 및 독립영화를 비롯하여 애니메이션, 판타지,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관이 없는 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발빠르게 독립영화 공동체상영 및 감독님과 대화의 기회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상영영화 목록이다. 「모래」, 「다섯은 너무 많아」, 「식코」, 「네비게이터」, 「사당동더하기22」, 「레드마리아」, 「밀양전」, 「후쿠시마의 미래」, 「에스맨프로젝트」, 「파산의 기술」, 「지슬」, 「안녕!오케스트라」, 「버스44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모래가 흐르는 강」, 「파닥파닥」, 「폼포코너구리대작전」, 「말하는 건축가」, 「말하는 건축 시티홀」, 「시리어스 맨」, 「천하장사 마돈나」.

**보유 자료에
가치를 더하는
〈상설 및 특별 전시〉**

시대적으로 중요한 자료 및 현용적 관점에서 필요한 아카이빙 자료 등과 같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희귀본, 자문위원 추천자료, 시대적 귀감이 되는 자료, 아카이빙이 필요한 현용자료 등이 올 한해 전시되었다.

상설전시는 <사람_冊(2014.2~2014.5)>, <정치모색2014(2014.6~2014.10)>, <나의 작은 박물관(2014.11~2015.2)>이 진행되었다. 특별전시는 <나에게 맞는 인문사회과학도서는?(2014.1~2014.6)>, <함께읽기 모임에서 추천한 책들(2014.7~2014.12)>이 진행되었다.



반딧불이상담실

반딧불이상담실은 학습관 수강신청 안내, 개인별 학습상담, 수원의 지역별 평생학습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상담, 누구나학교 및 누구나학습마을 지원, 재봉틀교실, 지렁이 분양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 학습관 이용자 누구나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쟁이카페



담쟁이카페는 차와 음료, 도서와 잡지 비치, 학습작품 전시, 소규모 학습 및 문화공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방문하시면 음악과 차를 즐기며 아늑한 공간에서 1,000여권의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휴게실

학습관 3층에 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간식거리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휴대폰 충전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2014

프로그램 현황

개설프로그램 수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개설강좌	66개	95개	73개	128개	362개

주제영역별 프로그램 수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인문교양	10개(15.2%)	27개(28.4%)	18개(24.7%)	33개(25.8%)	88개(24.3%)
지역특화	0개(0.0%)	6개(6.3%)	0개(0.0%)	5개(3.9%)	11개(3.0%)
시민참여	18개(27.3%)	11개(11.6%)	12개(16.4%)	36개(28.1%)	77개(21.3%)
직업능력	4개(6.1%)	12개(12.6%)	6개(8.2%)	13개(10.2%)	35개(9.7%)
사회통합	9개(13.6%)	8개(8.4%)	8개(11.0%)	8개(6.3%)	33개(9.1%)
문화예술	25개(37.9%)	31개(32.6%)	29개(39.7%)	33개(25.8%)	118개(32.6%)
합계	66개(100%)	95개(100%)	74개(100%)	128개(100%)	362개(100%)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참여인원(실인원)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참여인원	2,369명	3,036명	1,933명	4,691명	12,029명

참여인원(연인원 : 실인원×회차)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참여인원	8,814명	23,460명	10,507명	28,471명	71,252명

성별 참여인원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남자	368명(15.5%)	633명(20.8%)	275명(14.2%)	651명(13.9%)	1,927명(16.0%)
여자	1,233명(52.0%)	1,763명(58.1%)	953명(49.3%)	1,855명(39.5%)	5,804명(48.3%)
미기재	768명(32.4%)	640명(21.1%)	705명(36.5%)	2,185명(46.6%)	4,298명(35.7%)
합계	2,369명(100%)	3,036명(100%)	1,933명(100%)	4,691명(100%)	12,029명(100%)

연령별 참여인원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20대미만	250명(10.6%)	152명(5.0%)	156명(8.1%)	374명(8.0%)	932명(7.7%)
20대	111명(4.7%)	134명(4.4%)	61명(3.2%)	135명(2.9%)	441명(3.7%)
30대	302명(12.7%)	306명(10.1%)	141명(7.3%)	313명(6.7%)	1,062명(8.8%)
40대	489명(20.6%)	712명(23.5%)	293명(15.2%)	680명(14.5%)	2,174명(18.1%)
50대	382명(16.1%)	703명(23.2%)	332명(17.2%)	809명(17.2%)	2,226명(18.5%)
60대	144명(6.1%)	323명(10.6%)	139명(7.2%)	313명(6.7%)	919명(7.6%)
70대이상	8명(0.3%)	53명(1.7%)	30명(1.6%)	79명(1.7%)	170명(1.4%)
미기재	683명(28.8%)	653명(21.5%)	781명(40.4%)	1,988명(42.4%)	4,105명(34.1%)
합계	2,369명(100%)	3,036명(100%)	1,933명(100%)	4,691명(100%)	12,029명(100%)

지역별 참여인원

구분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장안구	389명(16.4%)	413명(13.6%)	282명(14.6%)	502명(10.7%)	1,586명(13.2%)
권선구	214명(9.0%)	307명(10.1%)	127명(6.6%)	302명(6.4%)	950명(7.9%)
팔달구	393명(16.6%)	598명(19.7%)	363명(18.8%)	625명(13.3%)	1,979명(16.5%)
영통구	500명(21.1%)	733명(24.1%)	290명(15.0%)	929명(19.8%)	2,452명(20.4%)
수원외	433명(18.3%)	336명(11.1%)	160명(8.3%)	342명(7.3%)	1,271명(10.6%)
미기재	440명(18.6%)	649명(21.4%)	711명(36.8%)	1,991명(42.4%)	3,791명(31.5%)
합계	2,369명(100%)	3,036명(100%)	1,933명(100%)	4,691명(100%)	12,029명(100%)

누구나학교 현황

누구나학교 개설강좌 수

구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계
강좌 수	75개	61개	136개

누구나학교 수강인원

구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계
수강인원	779명	435명	1,214명

온라인 이용 현황(접속건수)

구분	홈페이지	누구나학교/아카이브	자료관 블로그	합계
1월	51,662	20,603	3,444	75,709
2월	62,014	18,210	2,989	83,213
3월	59,082	23,709	3,226	86,017
4월	49,037	20,186	3,500	72,723
5월	44,363	19,607	3,250	67,220
6월	51,537	17,932	3,350	72,819
7월	46,135	12,568	3,400	62,103
8월	63,618	10,014	3,200	76,832
9월	48,276	10,924	3,350	62,550
10월	43,058	11,645	4,021	58,724
11월	37,743	12,191	4,520	54,454
12월	48,866	13,678	4,505	67,049
합계	605,391	191,267	42,755	839,413
(일평균)	(1,659)	(524)	(117)	(2,300)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구독현황

호수	발행일	구독인원	호수	발행일	구독인원
48호	01월 08일	6,446명	61호	07월 09일	7,283명
49호	01월 22일	6,554명	62호	07월 23일	7,315명
50호	02월 05일	6,600명	63호	08월 06일	7,323명
51호	02월 19일	6,756명	64호	08월 30일	7,405명
52호	03월 05일	6,871명	65호	09월 03일	7,505명
53호	03월 19일	6,992명	66호	09월 17일	7,564명
54호	04월 02일	6,953명	67호	10월 01일	7,665명
55호	04월 16일	7,149명	68호	10월 15일	7,716명
56호	04월 30일	7,216명	69호	10월 29일	7,784명
57호	05월 14일	7,248명	70호	11월 12일	7,802명

58호	05월 28일	7,260명	71호	11월 26일	7,834명
59호	06월 11일	7,225명	72호	12월 10일	7,849명
60호	06월 25일	7,250명	73호	12월 24일	7,615명
연간 26회 발행 / 연간 구독인원 189,180명 (회당평균 : 7,276명)					

언론보도 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	6건	24건	14건	6건	3건	2건	5건	19건	25건	5건	5건	3건	117건

시설이용 현황분석

구분	강의실	동아리실	시설대관	상담실	학습카페	자료관	합계
1월	3,958명	4,073명	2,750명	1,648명	1,899명	1,245명	15,573명
2월	4,388명	3,854명	2,098명	3,225명	2,069명	1,085명	16,719명
3월	4,771명	3,536명	1,133명	2,131명	2,812명	1,180명	15,563명
4월	6,531명	3,838명	924명	1,649명	3,443명	1,040명	17,425명
5월	5,625명	3,658명	480명	1,047명	2,926명	1,005명	14,741명
6월	4,834명	3,475명	929명	2,132명	2,492명	1,020명	14,882명
7월	5,079명	4,015명	1,580명	1,433명	3,318명	990명	16,415명
8월	3,598명	3,720명	3,380명	2,742명	2,300명	915명	16,655명
9월	4,463명	3,333명	500명	1,883명	2,531명	975명	13,685명
10월	6,675명	3,870명	1,780명	1,995명	2,495명	1,010명	17,825명
11월	7,853명	3,796명	2,360명	1,531명	2,698명	1,025명	19,263명
12월	5,218명	3,988명	2,336명	2,035명	2,192명	990명	16,759명
합계	62,993명	45,156명	20,250명	23,451명	31,175명	12,480명	195,505명
(일평균)	(212명)	(152명)	(68명)	(79명)	(105명)	(42명)	(658명)

2014 프로그램 목록

겨울학기(1~2월)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1월] 강신주의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청소년이상	1
	[2월] 진중권의 예술의 눈으로 세상 읽기	진중권	청소년이상	1
외국어	여행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8
	왕초보 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16
	왕초보 영어 계속 A반	홍이성	성인	16
	왕초보 영어 계속 B반	홍이성	성인	16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16	
예술인문학	정윤수의 클래식 속의 역사	정윤수	성인	4
마을열린극장	[1월] 모래	-	청소년이상	1
	[2월] 다섯은너무많아	-	청소년이상	1
글쓰기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8
어린이 프로그램	방학특강 어린이 머니멘토 A	민인엽	어린이	6
말랑말랑 시사토크	[1월] 공공서비스 민영화 (사유화)	홍헌호	청소년이상	1
	[2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짚어보기	노광표	청소년이상	1
거북이공방 워크숍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	전체	1
	꽃차 이야기	송주연	성인	1
누구나쌤	고교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쌤 3기	권지현 외	청소년	2
찾아가는학교	대추동이 작은 도서관 1	이승희	어린이	4
	대추동이 작은 도서관 2	이승희	어린이	4
	산내음 도서관	민인엽	성인	2
	드림 지역 아동센터	김은선	어린이	4
	꽃뫼 지역 아동센터	김은주 외	어린이	4
	숲과 나무 지역 아동센터	최대희	어린이	4
	명인초등학교	임이랑	성인	6
	영통신영초등학교	김은선	어린이	4
	석우중학교 1	-	청소년	1
	석우중학교 2	-	청소년	1
	석우중학교 3	-	청소년	1
	석우중학교 4	-	청소년	1
	매탄동교실 지역아동센터 저학년	이승희	어린이	4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창의적 업무스킬	매탄동교실 지역아동센터 고학년	김은주	어린이	4
	피피티보다 잘나가는 프레지	유장휴	성인	2
별의별기획워크숍	회의를 집중시키는 퍼실리테이션 게임	김성민	성인	2
	콜마이네임, 이름 만들기	정신	성인	3
컴퓨터	실무 엑셀 기초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16
장애인 청소년	장애인청소년 종이공예교실	이명희	청소년	8
	장애인청소년 형값공예교실	정미숙	청소년	7
	장애인청소년 물감과스케치	이경선	청소년	4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7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7
음악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8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8
	금요드럼 초중급반	오세준	성인	8
	금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럼 고급반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7
	토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7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 A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 B반	신인근	성인	8
	어린이 프로그램방학특강 신나는 만화 놀이터 A	김을호	어린이	6
	방학특강 신나는 만화 놀이터 B	김을호	어린이	6
	건강체육	댄스스포츠 초급 저녁반	홍석민	성인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16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7
사진영상	사진편집과 E-Book	문경순	성인	8
	디지털카메라	나종민	성인	4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문화예술학교	DSLR	나종민	성인	8
	윤경숙의 그림 있는 캘리그래피	윤경숙	성인	8
	이훈의 뮤지컬 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8
	이훈의 뮤지컬 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8
	이오연의 드로잉 워크샵	이오연	성인	8
휴먼라이브러리	2014 휴먼라이브러리	-	전체	1

1학기(3~6월) 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3월] 김진만의 세상 끝에서 미래를 만나다	김진만	청소년이상	1
	[4월] 승효상의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승효상	청소년이상	1
	[5월] 김두식의 나의 욕망, 너의 인권	김두식	청소년이상	1
	[6월] 이석영의 우주속의 나	이석영	청소년이상	1
수원시민인문대학5기	[인문대학1] 장자	유병래	성인	12
	[인문대학2] 사기열전	전호근	성인	12
	[인문대학3] 철학과 문학의 치유력	서동은	성인	12
	[인문대학4] 처음 읽는 현대철학	이병태	성인	12
	[인문대학6] 유럽 근대 문학	이병수	성인	12
	[인문대학7] 글쓰기	고영직	성인	12
	[인문대학8] 영화속 그림과 미술사	이현민	성인	12
	외국어	여행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사회학 세미나	왕초보 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32
	왕초보 영어 계속 A반	홍이성	성인	32
	왕초보 영어 계속 B반	홍이성	성인	32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32
	세상 물정의 사회학	노명우	성인	10
교육학 세미나	학교 너머의 배움을 찾아서	이희경	성인	8
글쓰기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16
마을열린극장	[3월] 식코	-	청소년이상	1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말랑말랑 시사토크	[3월] 네비게이터	-	청소년이상	1
	[4월] 사당동 더하기22	-	청소년이상	1
	[4월] 레드마리아	-	청소년이상	1
	[5월] 자본주의	-	청소년이상	1
	[5월] 엔론	-	청소년이상	1
말랑말랑 시사토크	[3월]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제 짚어보기	김보라미	청소년이상	1
	[4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박주민	청소년이상	1
	[6월] 세월호 진상규명과 그 이후	박진우	청소년이상	1
공동체 영화상영	밀양전	-	전체	1
	후쿠시마의미래	-	전체	1
길위의학교	[1차] 효행길	김용균	성인	1
	[2차] 화성 성곽길	김준혁	성인	1
	[3차] 지계길	김현희	성인	1
	[4차] 모수길	이달호	성인	1
	[5차] 화서	리온소연	성인	1
	[6차] 수원둘레길	이동근	성인	1
더느린삶	[3월] 건강 텃밭교실	장광진	성인	5
	[5월] 막걸리교실	허시명 외	성인	4
	[6월] 평화가 깃든 밥상	송정은	성인	4
	도시양봉가의 꿀맛 나는 이야기	박진	성인	1
경제강사 양성과정	수원 어린이경제강사 양성기본과정	-	성인	18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2기 (기본)	-	성인	12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2기 (심화)	-	성인	8
	제2의 인생학교	액티브 시니어의 제2의 인생학교	-	성인
찾아가는학교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	어린이	4
	수원아이쿱생협	-	성인	1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인터넷 스토리텔링 마케팅	이광성	성인	4
	스마트폰 활용의 달인, 앱코디네이터	강진영	성인	7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	성인	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와글와글포럼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 1차	-	성인	1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 2차	-	성인	1
컴퓨터	실무 엑셀 기초 A반	공은화	성인	16
	실무 엑셀 기초 B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32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32
장애인 청소년	장애인청소년 옛그림교실	이상은	청소년	12
	장애인청소년 형견공예교실	정미숙	청소년	12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15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15
	음악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15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15
	금요드럼 초중급반	오세준	성인	15
	금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15
	수요드럼 고급반	오세준	성인	15
	수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5
	토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5
	토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15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15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 A반	신인근	성인	15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 B반	신인근	성인	15
	어린이 프로그램	신나는 송송 동요교실 A반	한윤희	어린이
어린이 창의력 만화교실 A반		김을호	어린이	16
어린이 창의력 만화교실 B반		김을호	어린이	16
건강체육	댄스스포츠 초급 저녁반	홍석민	성인	32
	댄스스포츠 중급 저녁반	홍석민	성인	32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32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16
	사진영상	사진편집과 E-Book	문경순	성인
사진편집과 UCC제작		문경순	성인	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디지털카메라 A반	나종민	성인	4
	DSLR A반	나종민	성인	8
	DSLR B반	나종민	성인	8
문화예술학교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오전반	윤경숙	성인	16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저녁반	윤경숙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 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 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16
	이오연의 드로잉 교실 오후반	이오연	성인	16
	이오연의 드로잉 교실 저녁반	이오연	성인	16

여름학기(7~8월) 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7월] 오연호의 행복사회의 리더십, 덴마크에서 배우다	오연호	청소년이상	1
	[8월] 서민의 기생총과 인간사회	서민	청소년이상	1
인문학의 밤	인문학 북 콘서트	-	성인	1
외국어	여행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8
	리스닝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8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16
	왕초보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16
	초보영어 계속 A반	홍이성	성인	16
	초보영어 계속 B반	홍이성	성인	16
예술인문학	한여름밤의 재즈, 그 미학을 찾아서	정윤수	성인	5
글쓰기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8
마을열린극장	[7월] 에스맨프로젝트	-	청소년이상	1
	[7월] 파산의 기술	-	청소년이상	1
	[8월] 지술	-	청소년이상	1
	[8월] 안녕오케스트라	-	청소년이상	1
	[8월] 이야기가 있는 단편영화극장	-	청소년이상	1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말랑말랑 시사토크	[7월] 사회복지제도 진단	오건호	청소년이상	1
	[8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선포 이후, 동아시아 정세	하중문	청소년이상	1
책거리파티	책거리파티	-	청소년이상	1
인문학 아카데미	2014 학부모 인문학 아카데미 (초등)	-	성인	1
	2014 학부모 인문학 아카데미 (중등)	-	성인	1
동네수작업장	동네 수작업장더치커피 기구 만들기 워크숍	송주희	성인	4
더느린삶	[7월] 식초교실	허시명 외	성인	4
	[8월] 전통음료	김정숙	성인	1
누구나쌤	고교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쌤 4기	-	청소년	2
찾아가는학교	장안구민회관	-	어린이	5
	매탄초등학교	-	어린이	5
	광교자연앤자이 해늘작은도서관	-	어린이	7
	i길벗파장동모임	-	어린이	1
	대추동이 작은도서관 1	-	어린이	4
	대추동이 작은도서관 2	-	어린이	4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피피티보다잘나가는 프레지 초급	유장휴	성인	2
	피피티보다잘나가는 프레지 중급	유장휴	성인	2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심화과정	-	성인	1
와글와글포럼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 3차	-	성인	1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 4차	-	성인	1
컴퓨터	실무 엑셀 기초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16
장애인 청소년	장애청소년 물감과 스케치 A반	이경선	청소년	4
	장애청소년 물감과 스케치 B반	이경선	청소년	4
	장애청소년 형견소품교실 A반	정미숙	청소년	4
	장애청소년 형견소품교실 B반	정미숙	청소년	4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8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8
음악	금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금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럼 고급반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럼 초중급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8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8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 A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 B반	신인근	성인	8
어린이 프로그램	신나는 송송 동요교실 A반	한윤희	어린이	6
	방학특강 만화야놀자 A반	김을호	어린이	6
	방학특강 만화야놀자 B반	김을호	어린이	6
건강체육	댄스스포츠 초급	홍석민	성인	16
	댄스스포츠 중급	홍석민	성인	16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16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8
사진영상	디지털카메라	나종민	성인	4
	DSLR	나종민	성인	8
	사진편집과 E-Book	문경순	성인	8
문화예술학교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오전반	윤경숙	성인	8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저녁반	윤경숙	성인	8
	이훈의 뮤지컬 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8
	이훈의 뮤지컬 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7
	이오연의 드로잉 교실 오후반	이오연	성인	8
	이오연의 드로잉 교실 저녁반	이오연	성인	8

2학기(9~12월)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9월] 윤대현의 마음 성공:새로운 삶의 프레임	윤대현	청소년이상	1
	[10월] 유시민의 나의 한국현대사	유시민	청소년이상	1
	[11월] 고미숙의 근대성과 운명 : 앓, 사랑, 몸	고미숙	청소년이상	1
수원시민인문대학6기	[인문대학1] 동양 생명사상 탐구	유병래	성인	12
	[인문대학2] 인간의 가치 탐색	서동은	성인	12
	[인문대학3] 처음읽는 현대 철학	이병태	성인	12
	[인문대학4] 철학자가 사랑한 그림	전호근 외	성인	12
	[인문대학5] 유럽근대문학	이병수	성인	12
	[인문대학6] 마을을 상상하는 (인)문학	고영직	성인	12
	[인문대학7] 세상을 향한 글쓰기	양훈도	성인	12
외국어	여행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16
	리스닝영어회화	독고앤	성인	16
	영자신문, 뉴스읽기 A반	정선영	성인	16
	왕초보 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32
	초보 영어 계속 A반	홍이성	성인	32
	초보 영어 계속 B반	홍이성	성인	32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32
정치경제학세미나	살림/살이의 경제를 위하여	홍기빈	성인	8
교육학 세미나	비고츠키, 불협화음의 미학	박동섭	성인	4
글쓰기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16
마을열린극장	[9월] 모래가흐르는강	-	청소년이상	1
	[9월] 후쿠시마의 말들	-	청소년이상	1
	[10월] 파닥파닥	-	전체	1
	[10월] 품포코 너구리	-	전체	1
	[11월] 말하는 건축가	-	청소년이상	1
	[11월] 말하는 건축 : 시티홀	-	청소년이상	1
	[12월] 시리어스맨	-	청소년이상	1
	[12월] 천하장사 마돈나	-	청소년이상	1
읽기 프로그램	읽고 토론하기	김은하	성인	8
	나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	-	성인	1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말랑말랑 시사토크	[9월] 대한민국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김광진	청소년이상	1
	[10월] '일베' 에 빠진 사람들	조형근	청소년이상	1
	[12월] 세금과 예산: 창조경제 정책 진단	선대인	청소년이상	1
인문학 아카데미	2014 수원 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	성인	9
책거리파티	책거리파티	-	청소년이상	1
길위의학교	[1차] 특강 세계유산, 우리와 함께 한다	김준혁	성인	1
	[2차] 천험의 요새, 남한산성	노현균	성인	1
	[3차] 왕들의 정원, 조선왕릉	김준혁	성인	1
	[4차] 왕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창덕궁 & 종묘	홍순민	성인	1
	[5차] 정조의 꿈, 수원화성	김준혁	성인	1
개인정보 보호교육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조준형	성인	1
더느린살	Bee Happy-도시양봉가 되기	박진	성인	7
	평화가 깃든 밥상	송정은	성인	4
	전통주교실	허시명 외	성인	4
	약초교실	장광진	성인	4
	더느린살 네트워크파티	-	성인	1
동네手作업장	직접 손을 움직이기, 함께 즐기, 다른 방식의 만들기	-	전체	3
휴먼라이브러리	2014 휴먼라이브러리 in 수원	-	전체	2
찾아가는학교	태장동주민센터	-	성인	1
	장안구민회관	-	성인	1
	매탄초등학교	-	어린이	4
	연무초등학교	-	어린이	4
	대평초등학교	-	어린이	4
	효정초등학교	-	어린이	4
	동수원초등학교	-	어린이	6
	꿈을키우는집	-	어린이	4
대선초등학교	-	어린이	5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스마트폰 활용의 달인, 앱코디네이터	강진영	성인	13
	블로그+워드프레스 1차	김대영	성인	3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워드프레스 초급	김대영	성인	3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비주얼씽킹 워크숍	손호성	성인	3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인포그래픽	이해강	성인	2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모더레이터 심화과정	-	성인	1
제2의 인생학교	인생학교 심화과정 강사교육	-	성인	6
	인큐베이팅센터 스타트업컨설팅	-	성인	4
와글와글포럼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 5차	-	성인	1
컴퓨터	실무엑셀2010 심화반	공은화	성인	16
	실무엑셀2010 기초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32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32
장애인 청소년	장애청소년 옛그림교실 A	이상은	청소년	4
	장애청소년 옛그림교실 B	이상은	청소년	4
	장애청소년 옛그림교실 C	이상은	청소년	4
	장애청소년 헝겊소품교실 A	정미숙	청소년	3
	장애청소년 헝겊소품교실 B	정미숙	청소년	4
	장애청소년 헝겊소품교실 C	정미숙	청소년	4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16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16
음악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16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16
	수요드럼 고급반	오세준	성인	16
	수요드럼 초중급반	오세준	성인	16
	금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6
	금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16
	토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6
	토요드럼 중급반	오세준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 A반	신인근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 B반	신인근	성인	16
어린이 프로그램	신나는 송송 동요교실 A반	한윤희	어린이	16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신나는 만화교실 A반	김을호	어린이	16
	신나는 만화교실 B반	김을호	어린이	16
건강체육	댄스스포츠 초급 자이브	홍석민	성인	32
	댄스스포츠 중급 삼바	홍석민	성인	32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32
	요가 토요일 A반	김현	성인	16
	요가 토요일 B반	김현	성인	16
사진영상	사진편집과 UCC제작	문경순	성인	8
	사진편집과 E-Book	문경순	성인	8
	디지털카메라 A반	나종민	성인	4
	DSLR A반	나종민	성인	8
	DSLR B반	나종민	성인	8
문화예술학교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오전반	윤경숙	성인	16
	윤경숙의 캘리그래피 저녁반	윤경숙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 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 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15
	이오연의 드로잉 교실 오후반	이오연	성인	15
	이오연의 드로잉 교실 저녁반	이오연	성인	15
문화예술 발표회	우리 함께 발표회	-	성인	1

- 휴먼라이브러리 수원
- 누구나학습마을
- 와글와글포럼
- 교육학 세미나
- 예술인문학
- 나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
- 읽고 토론하기
- 말랑말랑 시사토크
- 제2의 인생학교
- 더느린삶
- 우리 함께 발표회
-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
- 수원외고에서 열리는 누구나학교
- 시민기자교육
- 인큐베이팅센터 99°C

2014 프로그램 다시보기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주길

로버트 카파와 편견

〈매그넘〉의 주축이자 위대한 중군사진기자, 게다가 포토저널리즘의 신화로 인식되는 로버트 카파는 다음과 같은 명언으로 오늘날에도 사진사들의 영혼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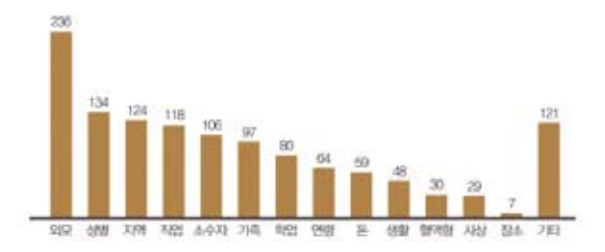
이 말은 더 가까이 다가가 접사렌즈로 찍거나 혹은 망원렌즈를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사체를 피사체로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카파의 핵심 요지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 객체화된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인식할 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물, 사람에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고 지레짐작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편견의 사슬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어반복입니다만 그렇다면 결국 사람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 그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수원 시민의 편견 리스트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23개의 지역 기관, 단체가 모여 지난 5월부터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준비(이하 준비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수원시민의 편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총 1,253건의 답신이 수거되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

다. 물론 이것은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표본 추출과 분석이 아니라 준비 기관의 이용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수원시민 편견 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데이터가 누적되게 되면 수원시민의 편견 경향과 그 변천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만 올해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면 수원은 외모에 대한 편견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혹은 몇 년 후에는 어떤 편견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할까 자못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것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6권의 사람책 섭외 그리고 대출

준비위에서는 위의 편견 조사를 바탕으로 사람책에 대한 섭외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책은 한편으로는 편견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도 용당 망설여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곧 섭외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거절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

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 끝에 26권의 사람책 섭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저씨 NO! 친절할 버스기사 OK!(버스 노동자) 나는 나의 삶을 산다(대학 거부자) 정상과 비정상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조현병 당사자) 나에게 탈학교는 과거가 아닌 현재(탈학교 청소년운동가) 다른 교육도 가능하다(홈스쿨링 맘) 노숙인의 삶과 애환(수원 시민) 나는 나의 삶을 산다(병역 거부자) 기레기를 위한 변명(경인일보 기자) 향기 나는 남자(화장하는 남자) 조폭-노숙인-인권운동가, 어떤 인생유전(노숙인 인권운동가) 마을을 둘러보면 아이디어가 샘솟아요(공무원) 남자를 좋아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성소수자) 북한을 아세요? 새터민을 아세요?(새터민) 저는 아줌마가 아니라 김윤주입니다(시민단체 활동가) 등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단체 활동가부터 만나기 쉽지 않은 새터민이나 성소수자까지 다양한 사람책이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정리하며 책 대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6일(금) 오전 10시 30분, 50분 동안 13권의 1차 대출을 시작한다는 신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책이나 대출자나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서 오는 서먹함과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자 서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변하면서 이곳저곳에서는 큰 소리의 함박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면서 현장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한 시민들의 반응과 평가

50분의 대출시간이 지나면 소감을 적어 사람책에게 전달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을 들여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소박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와 사람책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준비위에 제출하면서 1차 대출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잠시 숨을 고른 후 곧이어 2차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날에도 13권의 다른 책 대출이 전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양일에 걸쳐 총 26권의 사람책이 다양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으로 자신의 편견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편견이 크고 깊을수록 소요시간은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먼라이브러리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시민 교육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며 끝이 아니라 출발인 것입니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사람은 참여자의 반응이 무척 궁금한 법입니다. 그래서 시민, 사람책, 운영주체들은 이번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 매우 리얼하고 빨리 가슴에 와 닿았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현장감도 있고 교감과 소통 면에서 매우 좋은 방안인 것 같다. 일방책은 곱씹는 맛이 있다고 하면 사람책은 한편의 연



- 극을 보는 것 같이 입체적이다.
-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어서 처음엔 조금 어색했다. 그런데 현장감 있는 이야기가 깊이 있게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편이었다. 대출자와 사람책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 큰 강점인 것 같다.
 - 나는 별로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출을 하고 보니 나 스스로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도 그런 편견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왜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나 하는 생각이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고 보니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는 것보다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다. 나도 내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분들이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주는 신선함과 소통의 가능성, 향후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니다. 물론 면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 한국적 정서를 십분 감안해서 새겨들어야겠습니다만 아무리 냉정하게 분석한다고 해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는 결코 빈말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니다.



사람책 참가자들이 전하는 소감과 평가

행사 직후에는 바로 사람책들과 함께 간략한 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람책의 평가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경험을 해 보니 자기 점검이 되는 것 같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욕구도 크구나 느꼈다.
- 사람책 처음 봤다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니, 놀랍고 기쁘다는 반응이 있었다.
- 독자의 욕구에 따라 1:1 대출이나 혹은 다수 대출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간이 모자라다는 사람도 있고 옆 사람을 통해 흥미가 돋우어진 분도 있었다.
-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편견이 교정되었는데 이런 정보를 평소에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 이런 기회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행사는 종료되었지만 아직 마무리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평가가 그것입니다. 준비위의 그 평가에 따라 휴먼라이브러리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준비위에서 좌장 역할을

맡았던 양훈도 소장(한빛지역사회연구소)의 총평을 들어 보았습니다.

“다들 취지에 공감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람책이나 독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원시평생학습축제의 부대 행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소음에 취약하고 강한 햇빛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었다. 다음에 할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준비하면 좋겠고 휴먼라이브러리는 당연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책 섭외에 공을 들이면서 상대적으로 홍보에 조금 취약했는데 이런 것도 보완을 해 나가면 상당히 완성도도 높고 성과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대출자가 몇 명이냐는 양적지표가 아니라 휴먼라이브러리라는 형식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해 이해해보려는 가치와 태도. 이것이 휴먼라이브러리가 우리에게 주는 목직함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휴먼라이브러리는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생활 현장 곳곳에서 행해지는 일상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가치와 철학으로 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숙인 사람책으로 참여하신 한 분의 소감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달라지니 노숙인도 달라지고 있다. 노숙인에 대한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생각하지 말아 달라. 관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많지 않다. 노숙인 신세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이제 수원역에서 노숙인을 만나면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글 _ 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마을을 만난 누구나학교, 누구나학교를 만난 마을

‘누구나학교’와 ‘마을’이 만나 ‘누구나학습마을’을 꾸린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1년 동안 누구나학습마을에서는 어디서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연결했다. 지역신문이나 누구나학습마을 카페를 통해 마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마을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이 글을 통해 펼쳐 놓는다. 매탄4동, 조원1동, 화서1동. 세 마을을 찾아가 주민을 만나고 배움과 소통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편집자주)

산들래미, 나무가 산이 되어 사람을 모으다

매탄4동 산들래미 사람들은 추석맞이 송편을 만들거나 김장을 할 때 아름답리 고목 아래로 파고든다. 이 고목은 500년 넘게 마을의 중심에 있던 나무로, ‘산들래미’라는 지역명이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공원조차 원래 지형을 고스란히 담은 채 지어진 것처럼 마을이 겪어온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무만이 아니다. 사람도 그렇다. 무려 15년 정도나 통장님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그 예가 될 것이다. 매탄 4동 장용옥 통장님은 ‘8학년 미술시간’이라는 수업을 여셨고, 2014년 12월엔 거기서 나온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하셨다. 우연히 알게 된 미술치료가 계기였고, 마을 어르신에 대한 사랑이 원동력이 된 작업이었다. 마을이 도시가 되고, 낯선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등장하면서 아무라도 ‘누구나’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자는 누구나학습마을은 매탄 4동이 간직한 시간의 흐름과 어

우러져 있었다. 류명화 코디네이터가 함께 하며 시간되는 사람들끼리 밥도 푸고 글도 푸고 마음도 푸는 두레 밥상이나 ‘말과 글’ 강의로 재미와 모험으로 가득 찬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누구나학교 등에서 그 어우러짐을 만나볼 수 있었다.

공간이 열리자, 마음이 열렸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특별한 공간이다. 집을 살 때도 아파트를 사야 돈 좀 모을 줄 아는 사람이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임대나 아니냐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자고 할 만큼 아파트는 소비주체로서 경쟁하게 되는 또 다른 공간이다. 그러나 조원1동은 좀 달랐다. 누구나학교 교실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공간을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공동체 속에서의 ‘누구나’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이익을 극대화해야하는 소비주체로서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았다. 냅킨 아트 수업 수강자였다가 이제는 리본 공예 수업 강사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황덕규 선생님이 따르면 아이들은 자신을 무슨무슨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나 구 엄마’라고 부른다. 사회적 관계보다 가족적인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영숙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랬다. 초반기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의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지금은 그 대상을 넓혀 또 다른 엄마 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이에 대해서 “전체가 다 반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26개의 각기 다른 분야의 1등이 되면 되는 거

지.”라는 김지영 코디네이터의 말처럼 조원동은 각기 다른 자기 분야에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기 위해 공간만이 아닌 마음을 열고 있었다.

저마다의 필요에 맞춘 한 발자국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걸음들

한 엄마가 있었고, 사교육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다. 그러자 새마을문고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그 엄마가 바로 지금의 엄미화 새마을문고 회장님이다. 화서1동은 전통의 맥락에서 함께 하는 문화가 활성화 되었던 매탄4동과 다르게 성당의 마중물이나 신협, 도서관 등 도시화 이후에 만들어진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공통적으로 나타는 프로그램들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좀더 구체화 다양화되어 있었다. 마을 김치를 담그다 달려오신 주옥경 주부회 총무님은 김치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손바닥처럼 꿰고 계셨고, 뜨개수세미 하나도 화서 1동에서는 장갑 형태로 모자 형태로 나뉘는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있었다. 송보혜 주무관과 신은미 코디네이터는 시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누구나학교가 마을 사람들의 삶에 더 밀착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글_이소영(평생학습아카이브 필진)



현장 실무자들의 고민과 언어로 정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 학습자 상담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학습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여 최상의 학습효과를 내는 것이 평생학습기관 실무자의 역할이다. 하지만 평생학습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무자들이 모든 내용의 전문가가 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평생학습사업의 특성상 단일 기관의 자원만을 가지고 다채로운 학습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학습을 제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소속기관의 고유한 업무만 담당하고 본다면 평생학습사회의 이념을 담아내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열악한 평생학습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은 고유한 업무만 보기에다 바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참여와 공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은 모두 사회적 공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고민을 하며, 장소와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함께 모여서 떠들고 논의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장이 필요하다. 수원에서는 2012년부터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을 진행하며, 매년 초기포럼을 통해 한해를 꾸려갈 포럼 주제들을 선정하고 함께 모여서 떠들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은 16개 추진기관(서수원주민편의시설, 서호노

인복지관, 수원YMCA, 수원시교육청소년과, 수원시가 죽여성회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제일평생학교, 수원체육문화센터,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인계동주민자치센터, 장안구민회관)이 함께 했다. 3월에 실시한 기획포럼에서는 ‘평생학습이란?’, ‘평생학습 평가방법은?’, ‘학습자들을 자발적 모임이나 참여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리, 목적, 목표, 기획, 실행, 방법, 기획자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등을 정하고, 매회 주제 포럼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11월 19일 <와글와글 열린포럼>에서 그 결과를 나누었다.

세 가지 주제, 현장의 논의, 우리만의 정리

첫 번째 주제인 ‘평생학습이란?’에서는 평생학습의 개념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세대에 진행되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배움과 나눔의 순환과정으로, 그에 바탕한 목적을 삶의 질 향상, 주도적 사회인으로서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으로 정의 했다. 학습자가 학습과정의 주체라는 것을 그동안 잊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학습기관을 위한 교육이 아닌 학습자를 위한 교육으로 공통의 평생학습 목표를 정리하며, 실무자가 기획, 실행, 후속작업, 태도와 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주제인 ‘평생학습 평가방법은?’에서 평가는 학습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 및 학습자의 욕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목적은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 발전을 확인하기 위한 것, 더 나은 학습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 학습자의 욕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평가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방법과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가지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

세 번째 주제인 ‘학습자들을 자발적 모임이나 참여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에서는 포럼에서 학습자 조직화 개념을 정의한 것을 발표하고,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인계동 주민자치센터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포럼을 통해 얻은 결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개념이나 목적, 원칙, 방법을 이야기하고 평생학습의 철학이나 개념을 추진기관 실무자의 관점에서 이야기 했다.

다시, 와글와글할 2015년을 준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된 2014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 열린포럼>은 말랑한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 속에서 실무자들의 언어로 정리한 주제 포럼에 대해 현장에 적용한 사례나 분석한 내용을 발제했다. 또한 발제자를 패널로 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한 생각 나눔과 실무자로 가장 기억의 남는 것, 보람된 것 또는 아팠던 기억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기관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을 6가지 키워드(통찰력, 공감능력, 열정, 소통, 사명감, 사고의 유연성)로 뽑아 그 자질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을 논하는 시간으로 2015년의 와글와글포럼의 추진방향을 잡았다. 2014년 와글와글포럼은 16개 추진기관이 함께 연대하여, 열악한 평생학습 현장에서도 사회적 공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 지혜를 공유하는 참여의 과정과 절차를 함께했다. 평생학습기관 실무자인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함께 말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2014년 우리의 공통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 평생학습의 단계는 한층 더 성숙해짐을 느끼게 된다. 해가 갈수록 그 성숙함의 깊이를 더해갈 것이 기대된다.

글_박은미(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교 너머 배움을 찾아서

- 문탁 네트워크, 이반 일리히와 함께 한 8주간의 만남

“학교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대안은 사람들에게 같은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과 자신의 현재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일 것입니다.”

- 이반 일리히

올해 초 공부, 학교, 교육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고찰하고, 배움을 사유하는 세미나를 준비해보자 생각했을 때, 세미나를 이끌어주실 분으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문탁 네트워크》의 이희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어 이희경 선생님을 만나 뵙고 취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내용 및 일정을 조정, 같이 읽을 자료를 제본하는 등 준비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였으니 바로 세미나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문탁 네트워크의 세미나 이름을 살펴보기도 하고, 생각이 잘 안 날 때 하는 버릇대로 도서관 서가에서 검지로 먼지 구덩이 책 머리를 쓱~ 훑으며 머리를 굴려 보았으나 세미나 내용을 적절히 표현할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배움의 형식, 비전을 모색하는 문탁 선생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는 세미나이기에 굳이 멋진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발걸음이 드러나는 이름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학교 너머 배움을 찾아서>라는 세미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4월 첫 만남은 참여하신 분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일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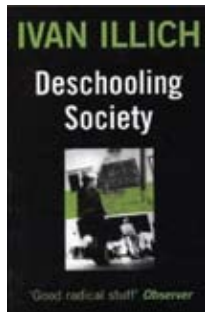
선생님, 혁신학교 선생님, 대안학교 선생님, 생협 활동가, 대학생, 학원 강사, 홈스쿨링을 하고 계신 분, 상담사, 대학 조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배움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학교라는 제도, 교육이라는 형식 너머의 배움을 이야기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의 과반수 정도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인사 후 모두는 이희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교 너머의 배움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며 선생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반 일리히, 『학교 없는 사회 Deschooling Society』

이야기는 80년대 이후 새로운 교육적 실천에 대한 계보 그리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다른 교육을 고민하던 공교육론자 그룹과 공동육아, 대안교육의 탈학교론자 그룹의 논쟁, 95년 교육개혁, 사회교육분야에서의 야학, 시민교육, 지역사회개발교육, 평생학습, 인문학 공동체 등등.

학교 너머의 배움,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에서 많은 논의와 실천이 있었고 실제 이희경선생님은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으로, 대안학교 공동설립자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공부하며 직간접으로 그 궤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넘는 교육에 대해 선명한 개념화나 실천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학교를 넘는다고 했을 때 학교의 형태 뿐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 학습을 넘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내용이 형태에 안 담길 때 대안, 혁신 등 다른 형태의 교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가?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자율성, 창의, 개성 등의 가치를 담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뭘까? 이런 질문을 밀도 끝도 없이 해서 계속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학교에서 마을에서 공부한다는 건 뭘까?”

그러한 와중 다시 만난 한 사상가의 저작들을 통해서 학교 밖 배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이반 일리히(Ivan Illich, 1926~ 2002)입니다. 1971년에 세상에 나온 이반 일리히의 『Deschooling Society』는 『학교 없는 사회』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가 없다니! 학교를 폐지하라니! 얼핏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날 소리라고 놀랄 수 있는데 실제 일리히가 제기했던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화(schooled society)’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삶에 대해 깨우치고 느끼는 게 없어도 학년이 올라가고 진학하게 됩니다. 배운다는 것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특정한 제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와 자격증에 의존하는 삶에 살게 된다

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의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정치라는 교과목으로 담아내려 하고, 어떻게 함께 먹고 살 것인가를 고안해 내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담아내 했던 거죠. 우리는 원래 세상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고, 강호에 숨은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삼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여러 가치를 배우는데 삶과 삶의 일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을 학교라는 형식에 얽자 결과적으로 삶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반 일리히가 『학교 없는 사회』에서 문제 삼았던 학교의 모순입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지면 건강, 사랑, 안전, 평화 같은 다른 가치 역시 의료제도, 결혼제도, 안전장치, 평화조약 같은 특정한 제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일리히는 이것을 ‘가치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라고 했고, 가치의 제도화가 팽배한 사회를 ‘학교화된 사회 schooled society’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학교화’ 될수록 스스로 삶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능력은 점점 쇠퇴합니다. 제도로부터 삶이 철저히 소외되는 상황. ‘학교화 된 사회’에서 모두는 무능력한 신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삶을 관료들이 제공하는 정책과 제도의 서비스에 맡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울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사실 나한테 있는 것을 모르고 바꾸기 위한 체계를 꾸리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학교화’는 꼭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대안적 가치를 지닌 조직, 작은 독서 모임에서도 ‘학교화’는 일어날 수 있고 또 반대로 학교 안에서도 ‘학교화’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에.

문탁 네트워크, 마을에서 만나는 인문학 공간

“우리는 신조차도 할 수 없는 것, 즉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들의 ‘교육학적 오만’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 이반 일리히



사진 : 임은석선생님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생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문탁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탁 네트워크의 사례는 매체를 통해 소개된 적도 있어서 기사를 읽고 처음 방문한 분이 “여기 거실에서 모여서 공부 시작했다는 사람은 누군가요?”라는 묻는 일도 있었는데요. 알려진 대로 시작은 2009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희경 선생님의 거실에서 동네 친구 9명과 함께 시작한 이반 일리히 세미나였습니다. 첫 책은 『성장을 멈춰라!- 자율적 공생을 위한 도구 Tools for Conviviality』였어요.

문탁 네트워크는 《인문학 공간 문탁》, 《마을작업장 월든》, 《마을공유지 파지사유》로 이어지는 인연과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없는 학교》의 실험을 거쳐 올 하반기 탈학교 미니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8주간의 세미나 동안 이희경선생님의 궤적, 이반 일리히의 사상 뿐 아니라 대안학교, 혁신학교에 관한 아티클 읽기, 자기주도 학습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한 논의, 학교에 가지 않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청년 목수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문탁 방문 등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짧게나마 옮겨 봅니다.

클래식은 음악을 넘어서 누군가의 인생이다

-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기쁘다. 전에는 항상 배움은 좋은 것, 배우면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도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과연 삶과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 외국 같은 경우엔 다양한 방식으로 홈스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학교는 안 다녔지만 대학은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 학교에 아예 안 다닌 아이들과, 학교에서 상처 받고 나온 아이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마을 학교가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꾸려져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현직 중학교 과학교사이다. 만약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예전의 나라면 어떻게든 학교 안에 남도록 설득하고 회유하려 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은 같았겠지만 경험치가 적어서 어떻게든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 밖에도 다른 배움이 있다는 정보를 줄 수 있고 불안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서건 그것을 벗어나서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공부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라는 말을 진심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 거 같다.
- 이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은 내가 보고 느끼지 못했다고 공감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벽을 쌓아왔던 것이 전부다 아니다. 내가 경험했던

사회를 똑같이 걸어 간다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 동안 편협한 생각을 해왔던 건 아닌가 싶었다. 이들이 뭔가를 찾고 있고 거기에 도움을 준다면 일반 학교에 목매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여지가 있을 거라라는 걸 느꼈다. 특히 문탁을 다녀오고 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았다.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학교 밖에 있으면 파라다이스고 학교 안에 있으면 안 좋은 것인가? 각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는 공통의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나누고 싶고 많은 물음을 남긴 채 세미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계속될 것입니다.

글_이재은(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세계 있어 클래식이라 하면 때론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음악 즉, 잠을 자기 위해서 듣는 자장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같이 중간에 ‘광!’하는 음악은 예외였지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서 매주 1번 씩 클래식을 듣고 억지로 감상평을 써야만 했기 때문에 세계 클래식이라 하면 ‘재미없는 것’이란 생각이 박혀있었습니다. 그 후 학창시절에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거나,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가사 없는 음악이 듣고 싶을 때 클래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클래식이란 하면 세계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되기보다는 음악공부의 수단이거나, 휴식을 위한 배경음악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정운수의 클래식 강의>를 알게 되었고, 이 수업으로 저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수강 신청하였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50대에 가족과 유럽배낭여행하기’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유럽의 세계사, 예술사를 직접 공부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가이드 없이 과거를 느끼고 오는 것입니다. 이번 수업은 그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래식 수업은 대만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총 4번에 걸쳐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강사님의 열정으로 가끔은 10시에 끝나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도 정말 짧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마다 바흐, 베토벤, 슈베르

트, 차이코프스키를 각각 다루었는데,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과 각 개인이 처한 상황, 능력을 모두 듣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간 중간 들려주신 음악들과 그것을 연주하거나 지휘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알려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수업에 몰입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베토벤 음악과 슈베르트 음악이었습니다. 베토벤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베토벤 바이러스? 운명 교향곡? 귀머거리 천재? 수업을 듣기 전 저는 이런 것들이 연상되었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 18C~19C 에 활동한 사람으로 그 때 유럽은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을 받았으며, 계몽주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상가들인 괴테, 쉴러와 접촉을 하면서 베토벤은 시대정신을 교류하였고, 청년시절 프랑스 혁명을 겪은 그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으로 계몽사상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현재 운명 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교향곡 NO.5’에서 베토벤은 저항적인 ‘세계시민 의식’을 투영하려 했습니다. 즉 ‘빠빠빠 밤!’ 이 큰 소리는 자유를 얻기 위한 사회적 투쟁 등 큰 고통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작은 고통을 잠식 시켜야 한다는 작곡가의 의도가 녹아있습니다. 그 저 ‘운명 교향곡’이었던 음악은 이제 세계 베토벤이란 한 음악가의 자유에 대해 치열한 고뇌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 시대의 대표주자인 슈베르트 음악은 베토벤의 음악과 달리 무겁고 웅장하기 보다는 편안하게 들

을 수 있는 음악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 때문에 베토벤보다 슈베르트 음악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슈베르트의 음악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빈체제로 인해 나약해진 개인들이 사회에 저항하기 보다는 일상에서 겪은 소소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적 양식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낭만주의라 부릅니다. 한편 빈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절대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한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몽시대의 저항적이었던 시민은 빈체제 이후 정치적 좌절로 인해 개인적 일상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인간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내면만은 다치지 않겠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단단한 모습으로 재해석한 강사님의 소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슈베르트의 음악은 베토벤보다 좀 더 부드럽지만 한편으론 삶에 대한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당시 사회적 상황과 연결해 예술가가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음악이 그저 하나의 선율로 느껴지기 보단 '진실을 보라! 그리고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지금 사는 게 힘들어! 그러나 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볼게!'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총 약 10시간 동안 예술의 한 획을 각각 세운 위대한 음악가들을 전부 다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

는 300년 전 그들이 음악을 통해 만들었던 메시지를 읽어냄으로써 진정으로 음악을 이해하며 음악가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에 대해 흥미를 알게 해준 정윤수 문화평론가께 감사드립니다.

글_배슬기(수강생)



「나의 작은 박물관」 일상이 아카이브가 될 때

- 사연 많은 것에 대한 소중한 추억 공유하기

일상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나만의 일상기록집'을 3개월에 걸쳐 만들었다. 우리의 일상이 뭐 보잘 것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일상사/문화사/미시사 등의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는 아카이브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권이 기록하지 않는 우리의, 나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는 바로 그러한 철학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보통사람들의 일상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나와 주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회를 기억하여 유명 인사에게 쏠려있는 역사 현상에 균형을 더해준다. 이것은 사생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실천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을 기록화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자신의 일상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현재 가장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기록하고 싶다는 욕구,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전의 기록들을 재정리하고 싶은 욕구 등이 반영되었다.

-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 일상에 가장 많이 떠오른 생각들에 대한 정리
- 나는 그 동안 어떻게 노동했는가?
-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어린 시절 삶의 공간은 어떤 형태였는가?
-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가?
-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아이와 함께 했던 일상에 대한 이야기

- 가족이 준 편지를 차곡차곡 모아 이제야 답장을 쓰는 편지글
- 시아버지의 암투병을 지켜보는 며느리의 솔직한 진료 기록과 그날의 마음에 대한 아카이빙
- 심리학 도서 중 인상 깊은 갈피
- 사업 구상에 필요한 아이디어 모음 기록
- 추억이 담긴 소소한 물건에 대한 기록

사진, 드로잉, 손글씨, 녹취, 컴퓨터워드 등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기록 전략 플랜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이웃과 공유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인생을 경청하는 시간을 계속 반복했다. 그렇게 하여 차곡차곡 쌓이게 된 기록들은 스캔북으로 발간하여 전시 및 대출 등으로 활용하였다.



소설가 김연수는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그렇게 많은 불빛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조금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겠는가."(2003년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김연수의 말처럼 인생을 조금의 불빛만으로 버틸 수 있다면 그 불빛은 무엇이든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소한 추억의 사연들이 담긴 것들은 개인을 지탱해주기도 한 작지만 소중한 불



전시 목록

- 송선희 | 못 전한 감사의 열쇠고리
- 마영미 | 아버지의 분신, 자
- 이경숙 | 결혼식 때 껴던 흰 장갑
- 이경숙 | 딸이 만들어 준 비늘꽃이
- 김정희 | 나의 첫 제주도 카드
- 권지영 | 나의 첫 연애노트
- 권지영 | 일하면서 받은 선물들
- 이강숙 | 부적과도 같은 열쇠고리와 펜던트
- 김정현 | 도요새책방 별별잔치 리플렛
- 김정현 | 희망의 노란봉투

※ 「나의 작은 박물관」은 수원시평생학습관 1층 도요새책방 옆에서 전시 중입니다.

빛이었다. 기록을 하다보면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각자의 추억을 공유하던 어느 날, 기록 집을 만든 우리들은 다 같이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에 대한 기억을 나눠보기로 했다. 이렇게 공유된 기억은 <사연 많은 물건들이 모인 나의 작은 박물관>이라는 전시로 이어졌다. 특 하면 실종되던 실핀과 머리끈의 소소함도 좋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도 만끽하기 위해……. 그렇게 모인 물건들은 결국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물건들로 구성되었다. ‘그땐 그랬지’하는 추억에 젖느라 수업의 진행 속도는 더뎠으나 밤늦은 물 건들로 작은 박물관을 열어보자는 생각이 미쳐 이렇게 전시로 이어졌다. 이것은 그런 엉뚱하고도 다소 귀찮은 기획에서 시작된 <나만의 일상기록집 만들기> 참여자들의 가장 작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글_김정현(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사회자료관 연구원)

끝없는 욕구와 공동의 삶을 논하다



앞과 옆을 한치도 볼 수 없는 날들. 도덕은 이상일 뿐이고, 늘 코앞의 생존 문제가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되어 버린 그런 생활들. 쉬는 날은 내 억울한 감정노동을 보상받기 위해 TV만 죽이고 봐야했다. 갈수록 ‘생각’이라는 것이 귀찮아졌고,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머리 아파졌다. 분명 옳지 않았지만, 저항해야 옳았지만 그것조차 힘겨워 모른 척 해버리고 싶어지는 정신건강의 이상 신호가 울린 지는 꽤 오래되어서… 나름의 액션을 취한 것이 이 프로그램을 찾게 된 배경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다른 방법은 있을까…? 이럴 때 어떤 책을 봐야 길이 있을까…? 특별하게는 못 살지라도,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인 시간을 보내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과 ‘책’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 <읽고 토론하기>였다. 책이라고 해봤자, 일의 연장선으로 기획에 필요 부분만 발췌해 읽는 형태가 고작이었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한다면 현실을 좀 더 폭넓은 사고로 이해하고 이 무지몽매한 좀비같은 생활에 고착되지 않는 변화를 내 안에 끌어올 수 있을까…? 책 속에는 나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책 속에서 찾지 못하는 대안은 사람 속에서,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얻기도 한다. 이것 역시 모르지 않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다. 또 주변에서 쉽사리

이런 기회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의 문제인 것 같다. 인터넷을 뒤지기만 해도 차고 넘치는 정보들… 많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손에 잡아야 할지 오히려 막막하기만 했다. 튜터가 함께한다는 것은 참 매력적이었다. 무엇을 읽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느 지점에서 나의 이야기도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는 역할은 강도 높은 세미나를 하는 방식의 책임기가 버거운 내게는 딱 맞는 스타일이었다. 혼자 읽었다면 충분히 이해되거나 해소되지 못했을 부분이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함으로써 좀 더 풍요롭게 해석될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두 달 동안의 과정 속에서 나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내 이야기를 떠듬떠듬 떠들 수 있었고, 좀 더 확대된 시각으로 내 일상을 객관화하면서 답답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다. 특정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섭렵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일상의 작은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피로한 직장인들과 사회를 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한 갈증난 주민들과 그리고 책을 통한 나눔의 긍정적 욕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역할, 그것이 <읽고 토론하기>가 아닐까 나름 의미를 부여해본다.

글_먼볼빛(수강생)

그리 어렵지만은 않네. 재미도 있네

칠보산 '북카페 마실'에 마실가다

요즘 수원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 금호동이라 불리는 서수원지역일 것이다. 수원의 오지라 불리던 이곳에 택지조성이 되면서 많은 수의 주민이 늘고, 주거 공간, 상가, 문화시설들이 증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문화나 복지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수원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12월 3일(수), 금곡동 《북카페 마실》에서 선대인 소장 과 함께 하는 '세금과 예산 : 창조경제 정책진단'이란 주제로 <말랑말랑 시사토크>가 지역의 마을과 함께 하는 차원으로 칠보산 자락 아랫마을로 마실을 나온 것이다.

말랑말랑 시사토크 속 : 세금과 예산

받아서는 강의보다 새겨듣는 강의를 지향하는 <말랑말랑 시사토크>라 하는데 제목과 달리 '세금과 예산'이란 주제가 결코 말랑말랑하지 않다. 평소 경제에 대해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날그날 벌여 먹고사는 도시민의 입장에서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12월 2일 12년 만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봤을 때도 375조 4000억 원의 돈 크기가 피부로 와 닿지 않았다.

전(前) 대통령의 정책 '사자방'에 대해 강의를 들을 때도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의 앞자리를 따서 지칭하는 것임을 처음 알았다. 내 자신만 특별히 무식

해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가 정책에 대해 무심한 경우가 많다. 먹고 살기도 바빴거니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봤던 정치인, 기업인들에 대한 실망으로 어느 순간부터 무관심해지고 '너네끼리 다 해먹어라'하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본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원, 유지비용만 한 해 7천억 원이다. 그 돈이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14년치의 금액인데, 이자수입까지 생각한다면 영구히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란 설명을 들으니 감이 왔다.

'자원외교'로 26조 원을 투자했으나 회수된 금액은 3조 원이다. 엄청난 부실 금액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앞으로 발생할 차후 부실자산에 대한 설명에선 무언가 치밀어 올라온다. 그동안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내 세금의 일부이고, 증세로 이어진다는 설명에선 그동안 나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으로 무심했던 나에게 초차 화가 났다.

가계, 기업, 공공기관의 부채 3,800조 중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3,400조인데, 이 금액은 우리나라 GDP의 2.5배란 소리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왔다. 지금 저금리라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지, 금리가 올라가면 힘든 상황이 온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 어떤 세금이든 깎아주면 생기는 경제효과가 있다. 감세효과로 인해 소비자, 근로자는 25%의 이익을 얻는 반면 기업, 법인은 75%의 이익을 얻는다. 깎인 법인세로 인해 손실이 생긴 세수를 보충하려면 부가가치세를 올리거나 담뱃세 인상 같은 간접



세를 올리게 된다. 그럼 서민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성장이 멎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초이노믹스'는 한국의 양적완화를 뜻한다는 설명에도 말 자체가 어려워 이해를 못했는데 '빛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책, 무제한 돈 풀기라는 해석에 조금은 알아들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주식이나 주택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인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게 아니라 전셋값만 올라갔다는 지적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마천루의 저주, 사내유보금, 연구개발(R&D) 투자 등 생소한 단어의 등장으로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꼭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명지갑이라 통용되는 직장인들의 정확한 세금처럼 고소득자층은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낙수효과를 바라지만, 이제 질적인 성장과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득권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정책과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정부는 더 이상 '늑대와 소년'의 거짓말소년으로 탈바꿈하지 말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공정과세가 된다면 세금을 안 낼 국민은 없다. 내가 낸 세금이 정확히 쓰여야 할 곳에 쓰인다면 증세를 해도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의식

세계를 갖고 있다는 설명에선 답답했다. 소위 국민의 행복을 결정지어야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생각난다.

우리들은 가치 있고 투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 탈세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재래시장이나 동네의 작은 가게를 이용하면 서민경제를 살리면서 아래로부터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나도 대형마트의 장보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재래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가본 재래시장은 많이 달라졌다.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다양한 품목과 질 좋은 제품들이 많아졌으며, 시장마다 본래의 색깔을 살려 특색화 한 점이다.

이번 시사토크에 참여하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겨우 한 번의 시사토크에 참여했을 뿐인데도 머리 아프고 딱딱한 경제정책이 나와 동떨어진 일이 아닌 현실의 문제이며, 조금의 관심만 기울이면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힘처럼 시민 하나하나의 의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시사토크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각자가 한 마디씩 내뱉은 말이다. "그리 어렵지만은 않네, 재미도 있네, 더 관심 가져서 도둑이 누군지 알아야겠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아는 게 낫지."

글_이명선(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기자)

액티브 시니어와 함께한 50여일간의 이야기

지난해 말부터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수차례 시니어 전문가 자문과 지역의 시니어 기관 방문,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니어들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시니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인생 후반전에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조합을 이루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하는지가 화두였습니다.

일본에는 은퇴 시니어들의 지역 데뷔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생활기반이 직장에서 가정과 지역으로 옮겨지는데, 사실 은퇴 초반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지역사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등산이나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은퇴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내가 살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제대로 알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40~70대 시니어 40명이 함께 한 2달간의 열정적이면서 즐거웠던 여정을 소개합니다.

100세 시대 변화를 읽는 시니어를 주제로 한 최운실 교수님(아주대)의 여는 강연은 시니어들의 잠자던 용기를 꿈틀거리게 하고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끌어 내기 충분하였고 특히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노인의 당당함과 지혜로 학습하는 노년의 모습을 꿈꾸게 하였

으며 시대변화에 따른 시니어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공헌 일자리 가이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고용불안의 해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앞으로 중고령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니어의 최대 관심사인 '재무&관계'에서는 사회변화의 눈을 달아주고 이웃나라와의 비교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예측해봄으로써 퇴직 후 생활에서의 돈 문제, 자금관리, 실직했을 때의 노후대책 등 준비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었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은퇴자금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
삶의 도처에서 숨어 있는 고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처럼 제2의 인생학교에서 깊은 내공의 고수들을 만나다.**

1박2일 워크숍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시인생이모작센터》와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를 방문해서 탐방, 특강, 시니어활동가와의 만남, 팸츠 컨퍼런스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시니어 활동가와의 만남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

어 의미 있었습니다.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도시농부 모임 《도시농업 S&Y 도시텃밭공동체》, 수공예 《꿈지락협동조합》, 경로당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의 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경로당 코디네이터》, 마을에서 난 유명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녹음하여 그것을 옮겨 적는 스토리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모여 만든 《이야기채록사 협동조합》까지 4개 섹터로 나누어 각자 관심 분야의 활동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탐방은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시니어 사회적 경제를 만나다'란 주제로 수원지역의 시니어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탐방하며 지역기반 사례, 사회공헌 일자리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니어 은퇴 활동 사례 시간에 '세상에 진 빛, 빛으로 돌려주다'의 나종민 대표는 좋은 조건에서 일하면서 그냥 안주할 수 있었던 일상을 벗어나와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배워 《바라봄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어 이종성 실장님(수원시니어클럽)의 강연으로 수원지역 노인일자리 사업과 시니어클럽 사업단 소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의 정리하는 'LIFE PLAN' 시간에는 인생 후반전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사회가 어떻게 하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까, 나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릴 것일까를 개인, 가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들이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도록 돕는 것이다.

이번 과정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더레이터 권지현 선생님과 강연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날 들은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문열기, 가치찾기, 상상하기, 내려놓기, 전환하기, 돌아보기, 준비하기, 정리하기 등 8단계로 나눠 워크숍을 진행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의미를 찾으며 관계를 맺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짧은 4주간의 입문과정을 마치고, 후속모임 겸 보수교육이 3주간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나온 '영상으로 만드는 내 인생의 자서전', '시니어 장독대 협동조합', '시니어 연극단', '생태 문화발전소' 등의 아이디어는 7월 9일(수) 액티브 시니





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미니 어워즈”를 통해 1개팀을 선발하여 학습관 인큐베이팅센터 입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미니어워즈를 끝으로 제2의 인생학교 1기 입문과정을 마치지만 이후 커뮤니티 모임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11월에는 심화과정으로 강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와 지역과의 연계, 지역 시니어 관련 네트워크, 시니어 지역 맵핑, 커뮤니티 형성과 시니어 정보 수집 등 1기 과정 동안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챙기며 더 많은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의 의한 제2의 인생학교를 꿈꾸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8회차 교육을 마치고 이번 교육을 참가한 시니어 참가자들의 소감을 전하며 제2의 인생학교 소식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의 인생학교 소감나누기

- 살아온 날 만큼의 남은 내 인생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난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난무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던 시간이었다.
-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고 이제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좋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동질감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촉진제가 되어 주었다.

- 모든 교육이 참 유익했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모작, 처음으로 접해본 생소한 용어들이 내 가슴에 꼭 박혔습니다.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체 오너의 마인드로 경제적 이익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갑으로서의 자만심이 가득했다. 60, 70, 80살 이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고찰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나의 인생 회고〉 시간은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역경 없이 편안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고, 모두가 평온한 모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각자 담담하게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 하면서 무뎠던 속살이도 많이 했었는데, 서로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위로 받고,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 나의 제2의 인생설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설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으로 설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글_유선애(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도시에서 꿀벌을 키워요!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양봉 강의 수강 신청해. 같이 듣자.” 언니의 말에, 수레바퀴와 같은 시간이 구르고 굴러 일어난 먼지에 까맣게 가려졌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몇 년 전 잡지와 다큐를 통해 세계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나름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보자며 나의 시원함을 위해 밖으로 더운 바람을 내뿜는 에어컨은 집에 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도시양봉. 친환경적인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친하고 싶지만 습관적인 ‘편리함’에 밀려 나오는 어색한 사이에 놓여 있었다. 에코백, 휴대용 텀블러, 손수건 등을 여러 개 갖고 있지만 비닐봉지, 종이컵, 물티슈를 주로 사용하는 나니까. 인간이 ‘편리’를 위해 만들어낸 다양한 물건들이 다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순환 고리를 나부터 하나씩 끊어내는 작은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강의는 내게 달콤한 용기를 심어주었다. 꿀벌과 공존하는 푸른 환경을 되찾자는 취지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에코맨이 된 것 같았다.

우리 아이는 개미, 잠자리, 매미, 지렁이와 같은 곤충에 관심이 많다. 벌은 몇 번 본 적이 없을뿐더러 가까이서 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 책 외에는. 나 어릴 적 만해도 집 앞, 길가에 피어있는 꽃에 항상 벌들이 날아와 웅얼거렸고 나도 그 꽃의 꿀을 먹겠다고 따먹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벌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꿀벌들이 원

인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이 자연환경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강의 영상 속 먹음직스러운 채소와 과일이 진열대 한가득 쌓여있는 모습에서 텅비어가는 진열대의 모습을 보며 꿀벌이 사라진 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느껴졌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질 것이라는 아인스타인 박사의 말이, 말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땅의 건강을 알려주는 지렁이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의 기능자인 꿀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곤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3가지 중 1가지 이상이 꿀벌에 의존하는 작물이기에 유럽에서는 꿀벌의 경제적 지위가 소, 돼지 다음이고 닭보다 높은 3위라니……. 2006년부터 일본, 덴마크, 홍콩, 뉴욕에서 꿀벌을 도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도시양봉이 농촌보다 밀원이 다양하고 농약으로 인한 폐사율이 낮아 생산량도 높다는 것이 놀라웠다.

양봉하면, 산중턱 어딘가에서 얼굴이 까맣게 탄 할아버지가 꿀벌이 웅얼대고 있는 칙칙한 나무 상자를 살펴보는 모습이 생각났는데 《어반비즈서울》을 통해 만난 도시양봉은 예쁘고 멋있고 심플하고 모던하고 맛있어 보였고 시크했다. 국내외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양봉법



이나 꿀, 밀랍양초, 화장품, 비누 제품들도 신기했다. 나에게 가장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나이 지긋한 분들이 하는 촌스러운 양봉이 아닌 세련된 양봉을 통해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되찾고 싶다는 어반비즈서울 대표 박진 강사님이었다. 젊은 청년이 양봉 강의를 하는 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지만 강의 내내 꿀벌에 대한 열정에 빠져들었다.

강의 끝에 밀납으로 코팅된 풀빵 같은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전통과자인 까눌레와 함께 다양한 벌꿀을 시식하고 나니 쉼한 꿀 향이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득했다. 화장품이나 비누도 일반 공장제품보다는 천연제품

을 애용하는 편인데 내가 직접 수확한 꿀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비누, 양초로 만들어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먹으면 몸에 좋고 바르면 예뻐지고 환경에도 좋은 것이다.

도시양봉가 교육도 받고 싶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할 나만의 별통을 하나 꼭 갖고 싶다.

잘 만났다 꿀벌아! 앞으로 너희들과 어떻게 친해져야할지 연구해봐야겠다.

글_정효은(수강생)



배움을 함께 한 사람들이 가꾸고 나눈 시간

TV에서는 계속되는 한파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은 연일 쌀쌀한 날씨에 한껏 어깨를 움추리고 다니는 요즘이다. 동장군이 활개를 치는 날이지만 옷을 두겹씩 껴 입고, 한낮이 되어도 녹지 않는 푹푹 얼어붙은 땅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수원시평생학습관 담쟁이카페로 향했다.

12월 11일(목) 담쟁이카페에서 2014년 열린 수많은 강좌 중에서 단연 인기 으뜸인 취미교양, 문화예술 강좌의 <우리 함께 발표회>가 열렸다. 발표회가 열리는 시간은 1시 30분이었는데 예정보다 20여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그런데도 많은 관계자, 참가자, 봉사자들이 미리 와 있었다. 맛있는 간식과 따뜻한 각종 차, 과일 등을 준비하는 손길에는 관객들을 위한 정이 느껴져 얼었던 몸을 금세 녹일 수 있었다.

“바야흐로 지금은 100세 시대이다. 수원은 평생학습도시를 일찍이 선언했다.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을 실현하고자 수원시평생학습관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죽는 그날까지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일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 오늘 맘껏 뽐내 주시길 바란다.”

정성원 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표회가 열렸다. I have a dream. 한번씩은 들어봤을 맘마미아의 주제곡이다. 결혼을 앞둔 소피는 엄마 도나의 일기장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 일지도 모를 샘, 해리, 빌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뮤지컬이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뮤지컬 강좌’ 강사 이훈의 지도로 입문반,

공연반으로 나누어 배우는 수강생들의 공연은 훌륭했다. 담쟁이카페 안의 작은 무대였지만 곳곳을 누비며 진짜 도나와 소피가 되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어느 뮤지컬배우, 비싼 유료공연 못지 않았다.

“지난 봄학기부터 배웠다. 음치, 몸치였는데 발성과 호흡을 배우고, 악보분석과 감정표현 등을 꾸준히 배워 공연까지 하게 되었다.”

공연을 끝낸 수강생은 소감을 전했다.

하와이 하면 생각나는 악기는 ‘우쿨렐레’이다. 오늘은 하와이가 아닌 이곳에서, 한겨울에, 즐거운 미소를 한껏 머금고, 조금은 나이 든 아름다운 그녀들이, 기타보다 작은 악기를 들고, 목에 꽃목걸이 레이를 두르고, 화관을 썼다. ‘꿈을 먹는 젊음이’, ‘그대들과 함께’,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를 연주하는 내내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흥에 겨워 박수를 치고 어깨를 흔든다.

매주 월요일 운영되는 ‘내 인생의 글쓰기반’ 수강생들은 직접 쓴 수필 ‘시골부동산아저씨의 세상사는 이야기’와 시 ‘나뉘는따라가리’를 낭송하였다. 누구나 한번쯤 문학도를 꿈꾸었을 것이다.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써보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요새는 블로그, 카페, 각종 SNS 활동으로 글쓰기와는 뗄 수 없는 현대를 살고 있는데 글쓰기에 자신감을 불어 주는 강좌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영어라고는 ABC 알파벳 밖에 몰랐어요. 그런 내가 팝송을 부르게 될 줄 몰랐어요. 가

죽들 모두 보러 왔어요. 가족들이 더 자랑스러워 해요. 꾸준히 배워 팝송도 많이 알고, 외국사람들과도 자신 있게 대화하는게 목표입니다. 물론 외국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수원시평생학습관에는 왕초보영어시작반, 초보영어, 기초영어회화반이 있는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제일 열심히 수강생의 말이다. 가사 하나 보지 않고 다 외워서 부르는 모습에 4,50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도 기타반은 우리 귀에 익숙한 영화음악을 연주했다. ‘클래식&포크기타반’은 매주 금요일 오전부터 3타임이나 연속적으로 있어 얼마나 인기 있는 강좌인지 알 수 있다. ‘캘리그래피반’과 ‘드로잉반’의 작품은 복도에 전시되었다.

“혼자라면 하기 힘들고,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함께 모여서 배우고, 연습하고, 서로 격려해줘서 여기까지 왔네요. 예전에는 우울하고, 짜증내는 일이 많았어요. 이제는 집안일을 할 때도 취미활동을 할 때도 열심히 하다보니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공연을 했던 수강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었다.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입가에 모두 웃음이 가득하다. 행복바이러스가 모두에게 전파된 것 같다. 학습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로, 이웃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공연이었다.

사람들이 다음학기 강좌 모집일정이 적힌 종이를 들고 나가며 한마디씩 했다. “나도 한번 배워볼까.”

글_박윤희(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기자)



겉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세요

2월 18일(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2014 휴먼라이브러리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약 300여 분의 참가자들이 창립자 로니 애버겔(Ronni Abergel)에게 직접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치와 철학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먼라이브러리 사례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공유합니다.

로니 애버겔(Ronni Abergel) 초청강연



‘편견’에서 시작한 휴먼라이브러리의 가치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에 도전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언론을 통해 마주치는 사소한 인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편견을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 이것이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없앨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휴먼라이브러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목도한 로니 애버겔의 아픈 과거에서부터 시작한 휴먼라이브러리 아이디어는 의미 있는 가치와 간단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 도서관과 똑같죠. 책 내용, 목록 정리하여 독자에게 대출합니다. 직장, 학교, 공원...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열린사회를 위한 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차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화합을 위한 운동으로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참가자 Q&A

강연이 끝난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오고 간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 휴먼라이브러리를 사람과 사람의 대화, 재능나눔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연을 들어보니 편견을 타파하는 것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휴먼라이브러리입니다. 사람책이 편견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그저 스토리텔링일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스토리텔링만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책을 섭외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숙인이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들로부터 이해받길 원하고 다수가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알고자 합니다. 100명을 섭외했을 때 거절한 사람은 2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해볼 수 있기에 대부분 섭외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책을 섭외할 때, 편견을 깨는 것,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 그저 만나봤다는 것 등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사람책을 섭외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이상적인 것은 편견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금발인 여성은 능력이 없고 몸매는 글래머러스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만약 금발여성 사람책을 섭외한다면 똑똑한 금발여성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고정적인 편견을 극복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극복할 수 있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사는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섭외하는 것 자체가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사회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공격이나 기획자 자체가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몇 번 있고 러시아에서도 그랬

습니다.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달랐습니다. 섭외하는 데 있어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커밍아웃을 한 사람,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편견을 깰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섭외해야 합니다.

사람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출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함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책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휴먼라이브러리는 해답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책도 사회적인 정답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독자와 공유하세요.

기획자가 가져야 할 동기, 스스로 즐겁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인권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 생각하는 기획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이 중요하죠. 이들은 중요한 기획자이자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책과 독자들이 의미를 가질 때, 고맙다고 할 때 힘이 납니다.

한국은 이념과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은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한 그룹에 있게 되면 자기 의견

을 내기도 어렵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한 GROUP THINKING(그룹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좀 더 글로벌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휴먼라이브러리가 취지에서 어긋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어플 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소통의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분쟁 지역에 휴먼라이브러리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는 것도 구상중입니다. 꿈이 있다면 전 세계적인 휴먼라이브러리 기념일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이겠지만요.

휴먼라이브러리 사례발표

공공기관의 상설 운영 시스템 <노원휴먼라이브러리>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나눔·소통·공감'의 가치를 중심으로 2012년 국내 최초 상설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상설 운영이라는 특징을 살려 상시적인 사람책 대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휴먼라이브러리 방식을 접목시켜 진행하고 있습

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상설운영을 위해서는 소속감, 창의적 운영위원회와 운영주체, 꾸준한 예산 등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휴먼라이브러리가 사람을 통해 소통을 매개하는 지역 사회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만들기 <숨쉬는도서관>

<숨쉬는도서관>을 운영하는 마포 《민중의 집》은 20여 개의 단체와 400여명의 개인 회원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노동조합, 협동조합, 시장상인회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안에서의 휴먼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나갔습니다. 사람책의 공간을 찾아가거나, 사람책의 공간에 직접 독자가 와서 낯을 하는 등 특별한 대출이벤트를 통해 지역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휴먼라이브러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장점은 사람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말이죠. 물론 측정 불가능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책과 독자를 신뢰하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포함했을 때 휴먼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서울숲사랑모임 청소년 리빙라이브러리>

리빙라이브러리에 독자로 참여했던 것을 시작으로, 2회부터는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섭외팀, 홍보팀, 후원팀으로 만든 체계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합니다. 기획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섭외에 난항을 겪기도 하고 청소년 자체에 대한 편견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빙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면서 사람책을 통해 직업군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과

오해, 고정관념을 줄이고 이해하는 행사로서 의미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또한 타 학교 청소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학교나 가족안의 소통을 위한 리빙라이브러리도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사회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강연과 사례발표 때 못 다한 이야기와 질문들은 네트워크 파티로 이어졌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창립자 로니 애버겔 초청 강연 및 심포지엄은 끝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포지엄이 끝났을 뿐입니다. 다시 일상에서의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해야겠지요.

글_이보라(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선생님한테 배울 때와는 또 다른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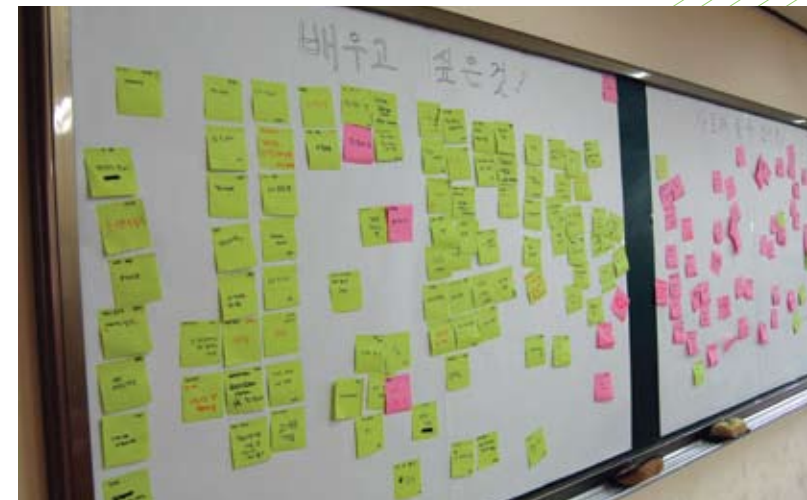
누구나학교 워크숍을 통해서 누구나학교의 참된 의미를 배웠다. 처음 'LETS'를 접했을 때,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만이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컸다. 그러나 워크숍을 통해, 누구나학교는 그런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한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배움터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작은 노하우부터 전공분야 지식까지, 제한이 전혀 없어서 말 그대로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작은 지식이 어떤 쓸모가 있을까',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수업에서 배울 것이 있을까'하는 처음의 의문에도 답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아무리 작은 지식이라도 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강의보다 값진 강의인 것이고 일반인의 시선으로 바로 본 수업은 전문가들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부족한 점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크림반도사태> 강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흥미로운 주제였고, 걸부분만 알고 있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또한 강의를 하는 친구들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해주어서 쉽고, 거부감이 없었고 시간분배를 잘한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정해진 시간 내에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함께 배워나갔고 친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루하지 않은

참여강의였다. 선생님께 배울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지식을 전달해준다는 느낌이었다. 또한 내가 듣고 싶은 흥미로운 강의를 선택해 들음으로써 더욱 강의에 집중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었다.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펼쳐내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누구나학교가 활성화되어 나중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자연스레 어느 곳에서나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업을 해봄으로써 배움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_정소희(수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경험해 보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기대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뒤에는 만족스러웠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 가르쳐 줬다는 것이 놀랍고 친구로서 자랑스러웠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밴드>, <레드윙즈>, <얼썬>를 들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는 얼썬이었다. 예전에 배웠던 사물놀이를 다시 배워서 기분이 새로웠고, 짧은 시간 동안 모두가 치기 쉬운 것을 배워 다 같이 합주도 해보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강의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이나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번 누구나학교를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특히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세 가지 강의를 들었기 때문

에 더욱 좋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강의 중에도 더 자세하고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 충분한 시간을 제공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다음에 누구나학교가 개설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주제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번에도 스포츠와 관련된 강의를 적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와 관련해서 배우고 실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글_김광진(수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상호영향을 받는 것

오랜 시간 동안 비록 준비를 하지 못했더라도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친구들·후배들과 나누며,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쓴 주제 중 <잠을 폭 자는 방법>과 <수면·생활습관>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업적 내용도 아니고 어쩌면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친구들과 함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사회과 포트폴리오 대회에 참가하면서 크립반도 이슈에 대해 조사·의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느껴서 이에 대해 친구들·후배들이 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크립반도사태>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려운 주제라고 여길 수도 있다고 느껴져 수업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짧은 역할 발표 활동,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는 시간, 초성퀴즈 등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며 수업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이 결국 학생에 대한 배려로 연결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는 학생들이 강의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 강의 이후에는 어떤 점을 배웠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



다. 강의자가 아는 내용에 대한 일반적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점, 이미 알고 있는 점 등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따른 방식을 고민하며 이루어지는 수업이 정말 의미 있는 강의를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수업 방식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고, 마지막 수업에서는 처음에 비해 발전된 강의를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눔’은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이나 지식이 아니라 배움을 나누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영문학자와 더불어 교육자인 교수를 꿈꾸는 나에게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서로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의미 있는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글_이선빈(수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시민기자 그리고 나

잘 가요, 수고했어요.

매번 보내고 받아들였던 연말, 연초이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월말 통장 잔고의 허무함과 푸른 보리가 자라는 느낌이 공존하는 알 수 없는 감수성 사이에서 오락가락 보냄이 싫었다. ‘어~’ 하다 ‘어느새’ 하는 시간, 반복되는 느낌, 그럼에도 여전히 편치 않은 마음들을 내 나이 반백이 되는 때엔 정돈하고 싶었다.

‘나’를 찾고 싶었다. ‘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 하는 식상한 답이 아니라 ‘그래, 이제 진정한 너를 찾아봐. 그동안 수고했어.’ 이 말을 듣고 싶었다.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약자라 하는 오팔(OPAL)족. 그 앞에 Blue를 붙여 제2의 인생에서 ‘나’를 찾는 첫 시작이 ‘시민기자’였고, 그 시작에 든든한 주춧돌이 된 것이 ‘시민기자 교육’이었다.

글쓰기

온전히 나를 위한 교육을 받아본지가 오래 되었다. 실용주의자가 아님에도 밥벌이와 관련된 교육만 찾아 다보니 ‘근원적인 나’는 없고, ‘타자를 위한 나’만 있음이 못내 아쉬웠던 때에 나 스스로에게 필요한 공부의 기회가 되었던 시간이 양훈도 교수님의 글쓰기 특강이었다.

딜레마에 빠져 있던 내게 쿡은 눈물을 흘리게 한 시간이었다. 한 번도 나의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 내 글에 대한 지적의 두려움과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으니 괜찮다는 양가

감정의 위태로운 줄타기에서, ‘글은 경험의 축적이다. 자만에 빠지지 말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정의가 콕 박히는 시간이었다.

자기보수 교육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과 나를 드러냄이 나를 인정하는 출발임을 알았다.

사진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관심 없이 살다가 하나둘씩 알아가는 재미가 꽤나 쏠쏠하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아이들 앞에서 각색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 사람 행세를 했다면, 이제는 모르는 것도 있는 사람으로 부족한 나를 드러내는 중이다.

알고 싶었고, 관심 두었던 분야와 세상에 대해 알고 싶다는 열망에 하나둘 인생 공부를 하던 때에 만난 박김형준 작가님의 ‘사진이야기’ 수업이 두 번째 시민기자 교육이다.

사진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작가님의 말씀이 어려웠다. 실체를 보지 않고 알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부족하여 도서관에서 ‘엄마 사라지지만’의 사진집을 찾아보았다. 한 장의 사진을 넘기면서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90세 엄마와 지내며 69세의 작가(한설희)가 담아낸 ‘엄마에 대한 마음’이 내 눈에도 읽혔다.

시민기자 활동기

‘주부’와 ‘시민기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오마이뉴스

김혜원 시민기자님의 ‘시민기자 활동기’ 교육이 마지막 수업이었다.

몇 년 전부터 스토리가 있는 기사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면서 주부의 강점으로 사는 이야기가 많은 우리들이야말로 세상과 소통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에선 든든한 구원군을 얻은 듯했다.

주관적인 에세이 같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시의성 있는 내용을 결부시킨다면 독자들은 그 안에서 재미와 감동,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부족한 나를 돌아보긴 했지만 어려운 일만은 아니란 생각에 힘이 났다.

내가 마지막으로 다짐처럼 되새김한 말은 ‘자기만의 분야를 특화하라’이다. 내가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삶으로 끌어들이어 이야기하고 체화시킨다면 다른 시민자와 다른 나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몇 개월의 시민기자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기자’가 아닌 ‘시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살아있는 소식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일상을 소박하게 담아내는 것이 ‘시민기자의 역할’이다.

‘나’를 찾고자 시작한 ‘시민기자’. 2015년에도 내가 사는 지역의 소식들, 특히나 평생교육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들을 열심히 찾아보자.

글_이명선(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기자)



추억디자인연구소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과거에서 자신을 되돌아 볼 때 사람들은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글이 아닌 사진으로 쉽게 내 인생을 정리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 또 많은 지나온 일들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진이나 자료를 정리하는 법을 같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때때로 영상으로 남기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추억디자인연구소 결성 계기는?

2014년 5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제2의 인생학교> 수료생들로 랫츠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에이징에 적응한 최고 70세부터 52세 막내까지 평균연령 50대 후반 7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노노(老老)케어를 목표로 어르신들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롱 속 빛바랜 사진이나 자료들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삶의 궤적을 통한 '가족정서 공유매개체'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재능기부 실천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제2의 인생학교 미니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추억디자인연구소 2014년 주요활동은?

추억디자인연구소는 2014년 7월 <수원시민 창안대회> Top5 선정되어 아이디어 실행기간(10주간)을 통한 프

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150만원의 실행금으로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회의를 통해 '개인이 아닌 단체나 마을로 결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비교적 수원지역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은 연무동쪽 경로당 3곳(창용, 장수, 수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추억디자인연구소의 활동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신 어르신이 있는 수성경로당으로 확정하였고, 제작에 필요한 사진수령과 의견 청취 후, 수정보완작업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는 완성된 영상 시연회를 마련하였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기대이상의 좋은 반응으로 만족스럽게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결선에서 수원시민 창안대회 '수원미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동아리 형태의 모임에서, 미래를 꿈꾸고 착한 사회적 가치를 꿈꾸는 사회적기업의 틀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2014년 11월부터 총6회에 걸친 가치혼합연구소 김재춘소장님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추억디자인연구소의 가치와 사업전개방안, 강점과 약점, 주요고객층 및 향후 계획들이 정리되고, 흐트러져 있던 퍼즐이 짜 맞추어지는 계기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서로의 참여를 이끄는 가치를 바로 볼 수 있는 큰 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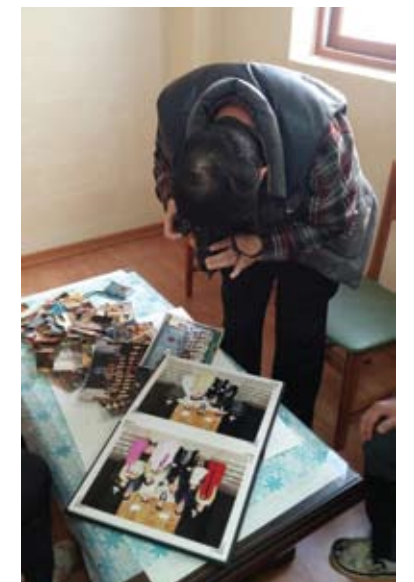
얻게 되었고, 팀원 화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억디자인연구소의 2015년 계획은?

추억디자인연구소의 사회 참여를 이끄는 가치를 바로 보고 아날로그적 감성을 통한 세대공감과 사진 상담을 통한 소통과 공유, 교육서비스, 주제가 있는 나만의 앨범 만들 수 있도록 사진 상담기법 개발, 매뉴얼 제작 등 전체적으로 추억디자인연구소의 역량강화에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나아가 협동조합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과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맞춤형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수원 지역 모든 어르신들이 삶의 의미를 재음미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추억을 디자인하여 '가족정서공유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글_이종림 소장(추억디자인연구소)



소셜드림 프로젝트 CoCoCo

소셜드림 프로젝트 CoCoCo란?

시작은 그랬습니다. '무언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각 전문 분야에서 강의와 봉사를 수년간 해 온 베테랑 강사들의 자발적 사회공헌 프로젝트 팀이 바로 '소셜드림 프로젝트 CoCoCo'입니다.

CoCoCo는 협력(Collaboration), 소통(Communication), 연결(Connection)을 키워드로 하는 3Co를 의미합니다. CoCoCo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소통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일 해보려다 시작도 전에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해체되는 건 아닐까? 수십 년 자신의 신념과 가치로 뚝뚝 뚫린 성인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함께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할까?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저런 고민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우리는 '배움'이라는 주제에 눈이 반짝였고 '나눔'이라는 주제에 마음이 설레고 '함께'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생김새, 성격 모두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교육이라는 테마로, 모더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보자'였습니다. 2014년 11월 모더레이터 심화과정을 마지막으로 6명의 정예 멤버가 구성되고 멤버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바꿀 일을 꿈꾸기 시작할 '소셜드림 프로젝트 CoCoCo'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기가 전달되었는지 12월 초 수원시 평생학습관 인큐베이팅센터 99°C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2014년은 열정과 에너지로 꿈을 꾸는 시기였다면 2015년은 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시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CoCoCo의 가치는?

CoCoCo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유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더레이터가 되기를 꿈꿉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기 꿈을 만들고, 자신이 꿈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배움이 아닌 함께 소통하는 배움이 되기를 꿈꿉니다. 사람들이 나만을 위한 공부 아닌 재미와 의미가 있는 남 주는 공부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배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앞으로의 CoCoCo는?

이런 상상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5년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 재미있는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배움을 나눌 수 있는 <렛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움

을 나누며 배움을 주제로 소통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 영일중학교에서 진행된 렛츠 워크숍에서 만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학교의 리더가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민주적 소통방법과 평화적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는 <슈퍼리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 모더레이터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수원지역의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그나이트 인 수원> 프로그램도 CoCoCo 주요 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모토로 수원시민들의 살아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수원 시민 소통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공유하며 웃고 우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CoCoCo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쩌면 우왕좌왕 좌충우돌 정신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꿈꾸는 일들이 가능하겠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인큐베이팅의 마지막 1도씨를 올리는,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왕좌왕 부딪혀 보고 깨져봐야 더 단단해 진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즐거운 꿈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몽상가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담스러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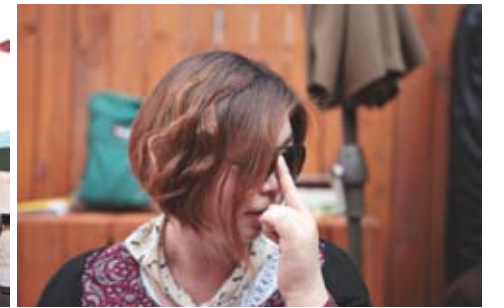
정도의 열정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CoCoCo의 즐거운 고군분투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CoCoCo의 소식은 다른 스타트업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도전의 아이콘이 되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7전 8기 '안되면 될 때까지' 파란만장 성공이야기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글 권지현 대표(CoCoCo)





조직소개

관 장	정성원
자문위원회	경창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김형인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 송원찬 전)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윤세홍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대외협력보좌관 이성엽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남경아 (주)공간일상 공동대표 황용원 수원YMCA 사무총장
기획팀	임성미 팀장 / 이보라 연구원 / 홍미라 연구원 / 김정현 시민사회자료관 연구원 / 권수정 시민사회자료관 연구원
교육팀	서영리 팀장 / 박은미 선임연구원 / 유선애 연구원 / 정희연 연구원 / 이재은 연구원 / 조진희 반딧불이상담실 연구원 / 이순애 반딧불이상담실 연구원
운영팀	유정하 팀장 / 손지훈 과장 / 박금명 사원 / 안옥진 사원

이용시간 및 주요연락처

시설명	월~금	토	이용문의
기본 개방시간	09:00~21:00	09:00~18:00	070-4477-6510(대관)
반딧불이상담실	09:00~19:00	09:00~18:00	070-4477-6515/6
도요새책방	09:00~19:00	09:00~17:00	070-4477-6518/9
담쟁이카페	09:00~21:00	09:00~18:00	070-4477-6517

※ 휴관일 |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